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조선시대 제주 관방유적 연계
중학교 지역사 교수 학습 방안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송 은 석

2021년 2월

조선시대 제주 관방유적 연계 중학교 지역사 교수 학습 방안

지도교수 전 영 준

송 은 석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2월

송은석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㉞

위 원 _____ ㉞

위 원 _____ ㉞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20년 12월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in Local History Education: The Case of the Jeju Coastal Defense System in the Joseon Dynasty

Song, Eun-Seok

(supervised by professor Jeon, Young-Joo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21. 02.

Department of History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 | |
|-----------------------------------|----|
| I. 서론 | 1 |
| 1. 연구목적 | 1 |
| 2. 선행 연구 검토 | 5 |
| 3.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 9 |
| II. 제주 해안 방어체계의 역사적 검토 | 11 |
| 1. 조선의 왜구 대응 정책과 제주의 관방시설 | 11 |
| 2. 제주 해안 방어시설의 상호 유기적 관련성 | 21 |
| III. 『탐라순력도』의 지역사 학습 자료 가치 | 26 |
| 1. 지역사 자료 개발의 필요성과 교수-학습 방향 | 26 |
| 2. 지역사 자료로 『탐라순력도』의 가치 | 30 |
| 3. 『탐라순력도』의 해안 방어시설과 현장유적 | 36 |
| IV. 지역사 교육을 위한 현장학습 프로그램 개발 | 44 |
| 1.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사전 사료학습 | 45 |
| 2. 현장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제시 | 53 |

| | |
|----------------|----|
| V. 결론 | 70 |
| 참고문헌 | 73 |
| 국문초록 | 77 |
| Abstract | 78 |

표 목차

| | |
|--|----|
| <표 1> 중등학교 교육과정 역사 - 목표 | 2 |
| <표 2> 읍성 축조와 규모 | 17 |
| <표 3> 제주 9진성의 축조시기와 현황 | 18 |
| <표 4> 환해장성 소재지와 잔존현황 | 20 |
| <표 5> 역사교과서의 해안방어시설 서술 및 삽화, 그림 | 26 |
| <표 6> 중등학교 교육과정 역사 - 교수 · 학습 방향 | 29 |
| <표 7> 사료선정기준 | 31 |
| <표 8> 『탐라순력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안방어시설 | 32 |
| <표 9> 현장학습 지도계획 | 44 |
| <표 10> 사료학습의 학습목표 | 46 |
| <표 11> 문답식 수업에서 교사가 사용하는 질문의 종류 | 46 |
| <표 12> 사료학습 교수 · 학습 과정안 | 47 |
| <표 13> 조천진성 프로그램의 학습 목표 | 53 |
| <표 14> 조천진성 현장학습 교수 · 학습 과정안 | 54 |
| <표 15> 화북동 해안방어유적 프로그램의 학습목표 | 58 |
| <표 16> 화북동 해안방어유적 현장학습 교수 · 학습 과정안 | 59 |
| <표 17> 제주읍성 프로그램의 학습 목표 | 63 |
| <표 18> 제주읍성 현장학습 교수 · 학습 과정안 | 64 |

그림 목차

| | |
|-----------------------------------|----|
| 그림 1) 제주조점의 장면도 | 33 |
| 그림 2) 화북성조의 장면도 | 34 |
| 그림 3) 조천조점의 장면도 | 35 |
| 그림 4) 제주읍성도 | 36 |
| 그림 5) 제주읍성 남문 옆 치성 | 37 |
| 그림 6) 제이각(制夷閣) | 37 |
| 그림 7) 연희각 정면 | 38 |
| 그림 8) 만경루 근경 | 38 |
| 그림 9) 화북동 해안방어유적 분포도 | 39 |
| 그림 10) 화북진성 북쪽 성벽 | 40 |
| 그림 11) 화북진성 서쪽 성벽 | 40 |
| 그림 12) 별도 연대 | 41 |
| 그림 13) 별도 연대의 구조물 | 41 |
| 그림 14) 화북 환해장성의 외벽 | 41 |
| 그림 15) 화북 환해장성의 내벽 | 41 |
| 그림 16) 곤을동 환해장성 | 42 |
| 그림 17) 주택의 담으로 이용되고 있는 환해장성 | 42 |
| 그림 18) 조천진성 | 43 |
| 그림 19) 조천연대 | 43 |

I. 서론

1. 연구목적

우리 역사교육에서 중요한 논의들 중 하나는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가의 역사교육 내용 문제이다. 때문에 오랫동안 역사교육의 내용을 둘러싼 이해관계로 세계사교육 고사론, 주변국의 역사왜곡, 정권의 교과서 서술 개입 등 많은 논란이 일어났다. 이러한 논란의 원인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과 심화에 있었고, 특히 역사학계에서는 사회과학과의 통합으로 역사교육의 위상이 약해지는 상황에 대한 논의와 대안 제시가 활발히 진행되었다.¹⁾

역사과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회과로부터 독립되면서 존재의 기로에서 벗어났고, 2016년 한국사가 수능 필수 과목으로 선정되면서는 그 위상이 점차 강화되었다. 따라서 역사교육에서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 졌다. 한편, 학습자들의 경우 자신의 삶과 동떨어진 역사를 배우면서 역사에 대한 흥미를 잃어갔으며, 현장의 교사들 또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삶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학생들은 자신의 생활범위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다.²⁾ 그러므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 교육은 전체사 속의 지역사를 통해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적절한 학습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는 현장의 역사 교사도 수업을 통해 인간의 구체적인 생활을 적절하게 보여줄 수 있는³⁾ 교육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최근 새롭게 발표되어 확정된 2018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지역사 교육의 필요성을 잘 제시하고 있다. 다음 <표1>은 2018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역사과 목표이다.

1) 양정현, 「포스트모던 역사 이론의 ‘민족’ 논의와 역사교육」,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책과함께, 2005, 302쪽.
2) 최상훈 외,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책과함께, 2007, 171쪽.
3) 최상훈 외, 위의 책, 2007, 172쪽.

<표 1> 중등학교 교육과정 역사 - 목표4)

- 가. 한국의 전근대사와 세계 역사의 주요 사건과 개념을 이해한다.
- 나. 한국의 전근대사와 세계 역사를 연속성과 변화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한다.
- 다. 한국과 세계의 정치와 문화가 지역의 특수한 조건 아래 변화하였음을 이해하고, 여러 지역이 서로 관련을 맺으며 발전해 왔음을 파악한다.
- 라. 다양한 역사 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증거에 기초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적 설명을 구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 마.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역사적으로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 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문화와 전통, 가치를 인정하고, 민주와 평화의 정신을 존중하는 자세를 기른다.

현행 중학교 역사과 교육과정의 목표 중 하나는 한국사와 세계사를 연속성의 관점에서 학습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교육과정에 의해 만들어지는 중학교 교과서 역사①은 세계사 영역으로, 역사②는 한국사 영역으로 분리함으로써 보편성을 전제로 하는 세계사를 먼저 학습하고 이어서 한국사를 학습하는 체제로 편성되었다. 이러한 구성은 2011 개정 교육과정까지 중학교 역사에서 한국사와 세계사를 횡렬적으로 편제하는 방식을 지양하였으며, 학생들이 세계사적 맥락에서 한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을 특징으로 삼을 수 있다.

또한 2018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유럽과 중국 중심의 세계사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인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세계의 다양한 생활문화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⁵⁾ 이것은 학생들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세계 여러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구성으로 세계사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아울러 중학교 역사교육의 목표에서는 여러 개의 역사 자료를 다양한 방식으

4) 교육부, 「중등학교 교육과정 역사 - 목표」, 2018.

5)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교육과정 개정 방향』, 2018.6.22. (교육부 누리집(<https://www.moe.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입법예고).

로 학습하여 역사적 설명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적 측면을 강화하였다. 그래서 2018 개정 교육과정은 지역사 교육이 지닌 특성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지역의 특수한 조건에 따르는 다양한 생활사를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지역과 지역이 서로 관련을 맺고, 지역사·국가사·세계사가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해 왔음을 적절하게 보여줄 수 있다. 최종적으로 볼 때 풍부한 자료를 포함하는 지역사의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탐구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 교육은 그동안 역사 과목의 시수 부족과 입시 부담으로 인해 활발하게 시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현행 교육과정이 기존 교육과정과 변화를 보이는 또 하나의 특징은 중학교 역사의 한국사 내용과 고등학교 한국사의 내용 중복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이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꾸준히 실행하고자 하였던 계열화에 대한 작업으로 오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내용 반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⁶⁾ 그것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2011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실질적인 내용 감축보다는 성취기준의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내용 축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계열화가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⁷⁾

2018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한국사 교육은 전근대사의 비중을 늘리고 근현대사의 비중은 줄였으며 전근대사는 통사과정으로, 근현대사는 주제중심으로 교과서를 구성하였다.⁸⁾ 이와 반대로 고등학교의 경우는 전근대사의 비중을 줄이고 근현대사의 비중을 늘렸으며 전근대사를 주제중심으로 근현대사를 통사과정으로 구성하였다.⁹⁾ 이렇게 내용 중복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2020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교과서의 분량이 상당 부분 감소되었다.¹⁰⁾ 따라서 학생들은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학습 부담이 줄었으며, 교사는 역사적 내용을 깊이 있게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6) 전영준, 「2009년 개정 교육과정과 현행 중학교 8종 역사부도 분석-고려와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사총』 73,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1, 243-244쪽.

7) 김민정, 「역사과 교육과정 내용체제의 대강화와 성취기준 제시 방식에 대한 재검토」, 『사회과교육연구』 21,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14, 3쪽.

8)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 역사 - 내용 체계』, 2018.

9)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한국사 - 내용 체계』, 2018.

10) 내용 적정화로 인해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6개의 대단원으로 유지되던 전근대사 영역에서도 5개의 대단원으로 축소되었고 기존 3개의 대단원으로 운영되던 근현대사 부분은 1개의 대단원으로 내용이 축소되었다.

2018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화하고 있는 지역사 학습의 목적은 지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학습하는 것이다. 먼저 중앙과 대비되는 지방사의 관점에서 중앙사와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학습하고, 중앙사에서 배우는 내용을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미시적으로 알아볼 수 있으며 중앙사의 정책이 자기 지역에 미쳤던 내용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중앙사에서 배우는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 학습에서는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 학습할 수 있어서 역사를 이끌어나가는 주인공으로써 지역민의 역할과 지역의 특수한 환경에 펼쳐진 역사를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사교육 현장에서 실천적인 탐구학습을 가능하게 할 지역사 학습을 구체화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선시대 제주의 관방체계를 선정하여 교수·학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제주의 관방체계 학습은 중앙사의 해안 방어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조선시대에는 대표적으로 북쪽의 유목민족과 남쪽의 왜인들의 위협에 대비해야만 했다. 조선정부에서 남쪽의 왜인들에 대한 방비를 위해 구축하였던 연해지역의 관방체계는 대외관계사적인 측면과 군사 운용을 포함한 방어체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임진왜란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대규모 침입, 이양선의 출몰과 서양의 통상요구로 인해 조선정부는 더욱더 해안방어체계를 강력하게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제주의 해안 방어 체계에 대한 이해는 중앙에서 활용하였던 읍성과 봉수의 운용방식 및 방어체계와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조선의 해안 방어 체계를 미시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는 지역사 교육의 학습 자료로 장점을 보인다.

두 번째는 제주의 해안 방어체계는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특수성을 학습할 수 있다. 조선후기 제주의 해안 방어체계를 보병 중심으로 편성함으로써 같은 시기 수군이 강화되는 중앙과 비교할 수 있는 점이다. 이는 제주의 지형적 특성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馬軍의 강화가 돋보인다. 해안 방어시설의 상호 유기적 역할과 제주의 戰馬를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하려 했던 제주인들의 지혜도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며, 탐구기능¹¹⁾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재이다. 아울

11) 제주에서 목마(牧馬) 방식의 탐구는 고려 때부터 비롯되는 목축과 조선에서도 이를 계승한 10

러 제주에만 있는 환해장성의 존재도 제주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제주의 해안 방어체계는 지역사 학습에서 요구하는 특수성 그리고 중앙사와의 관련성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주의 해안 방어체계는 제주사의 전개에서 볼 때에도 중요하다. 제주는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지정학적인 이유로 인해 매 시기마다 외침의 위협에 시달려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주인들은 생존을 위한 축성과 남성의 부족으로 인한 여성의 동원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주를 지키려고 하였던 제주인의 정신을 알아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제주 해안 방어체계의 학습방안을 지역사 교육으로 제시하여 역사적 사고력과 탐구 능력을 提高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지역사 연구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1990년대 들어 각 지자체들이 지역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활성화되었다.¹²⁾ 이에 지역사를 활용한 교육 방안이나 학습 방안도 확대되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지역사 학습 방안 연구를 확인할 수 있다.

제주 지역에서는 문화재·박물관·설화 등의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사 학습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한 지역사 학습 방안이다.¹³⁾ 이들은 교과서 혹은 지역사 교과서에 있는 지역사 자료를 분석하고 지역사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토의법, 현장체험학습 등 역사과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도입하여 지역사 학습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기할만한 연구는 강민희의 연구가 있다.¹⁴⁾ 강민희는 역사과 교육과정 분석을

소장의 운영에 대한 이해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목마과정에서 지역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갖성의 축조를 통해 당시의 사회상과 생활사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소재가 된다.

12) 최상훈 외, 앞의 책, 2007, 171쪽.

13) 고효숙, 「향토사학습의 내용조직과 학습방법 : 제주도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고영호, 「아동의 흥미에 기초한 향토사 수업모형의 구안 및 적용 : 제주도 지역화 교과서의 향토사 단원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통해 6차 교육과정부터 2009개정 교육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지역사 교육이 강조되어 있음을 근거로 재차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교과서 9종에서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제주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서술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교과서의 서술을 분석하여 지역사 자료를 선정하고 자료와 어울리는 역사과의 교수-학습 방안을 적용하여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 제주의 모든 지역사 자료에 대한 지역사 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교과서 안에 있는 제주 지역사 자료를 모두 분석하고 수업을 구성하다 보니 정작 각각의 학습지도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제주지역의 박물관을 활용하여 지역사 학습 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이 있다.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 교육을 활성화하는 연구이다.¹⁵⁾ 박물관의 자료, 시설, 교육 프로그램 등 박물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사 교육 방안으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박물관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담당자, 교육부서 설립 등 교과 전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은미는 『탐라순력도』를 분석하여 지역사 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¹⁶⁾ 다른 연구와는 달리 『탐라순력도』의 문화적 가치가 아닌 역사적 가치에 주목하여 『탐라순력도』를 분석하고 역사적 가치를 밝힌 후 전시 감상, 학교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에 맞는 학습지도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탐라순력도』라는 제주의 독특한 사료를 교육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주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박물관을 방문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열린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방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학교교육과 연계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14) 강민희, 「중학교 역사교육에서 제주지역사 교수-학습 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15) 정영임, 「제주지역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과 활성화 방안」,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한지윤,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 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국립제주박물관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강은실,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오혜진, 「어린이 박물관의 교육내용 분석: 국립제주박물관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16) 한은미,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국립제주박물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개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박물관을 활용한 다른 방법의 지역사 학습 방안 연구로는 박물관과 학교교육 과정을 연계하여 지역사 학습 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이 있다.¹⁷⁾ 이들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분석하여 교과서와 관련이 있는 지역사 자료를 선정하고 그 지역사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을 활용하여 학교교육과 연계하고, 구체적인 지역사 학습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은아는 먼저 지역사 자료를 검토하여 제주의 의식주생활을 주제로 교과서와 지역화 교재를 서로 비교하여 제주만의 학습요소를 찾아내고 선정하였다.¹⁸⁾ 이러한 학습요소를 제대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현장체험학습의 적합함을 주장하고 직접 답사지에 가서 자료들을 일일이 분석하고 학습요소를 찾아냈다. 그 후 학습요소에 대해 현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활동을 사전, 현장, 사후 활동으로 나누어 활용하고 그에 맞는 학습지도안을 제시하였다. 교사가 필요에 의해서 직접 교육요소를 찾아내고 그에 알맞은 교육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체험학습을 이용하여 지역사 학습방안의 선행연구로 좋은 사례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제주 지역의 다양한 지역사 자료를 활용한 학습방안 연구도 있다.¹⁹⁾ 이들의 연구에서는 신화·설화·문화·유적 등 연구자들이 중요성과 필요에 의해 특정한 자료를 선정하고 그 자료의 역사적 가치 혹은 교육적 기능을 연구하였으며 그 자료를 활용한 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재훈은 초등학교에서 지역사 교재를 통해 학습해야 할 지역사 자료로 조선시대 제주의 방어시설을 선정하였으며 3읍성, 9진성, 환해장성 등에 대한 체험학습을 중심으로 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²⁰⁾ 제주의 관방유적을 활용하여 지역사 학습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성곽의 보존상태, 지리적 위치 등 성곽 자체에 주목하는 학습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의 3성 9진 25봉수 38연대의

17) 임보아, 「선사유적 박물관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분석: 제주 삼양동유적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오명숙, 「제주 지역사 교육을 위한 초등학교 연계의 박물관 문화재 활용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18) 문은아,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지역화 학습을 위한 현장학습 프로그램 개발: 제주민속촌 박물관을 사례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19) 고희주, 「제주설화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 고등학교 문학교과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고범석, 「제주 유배문화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일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고안나,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방안」,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20) 장재훈, 「조선시대 제주지역 방어시설의 학습지도방안 -초등학교의 향토사 교육과 관련하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기능과 상호 유기적 운용체계를 알아보는 것에는 한계를 보인다.

다음으로는 조선시대 제주의 해안 방어체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겠다. 제주의 해안 방어체계에 대해서는 역사가들이 역사적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존재한다.

제주의 해안 방어체계에 대한 연구로 관방시설의 분포와 설치양상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²¹⁾ 이들의 연구에서는 제주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외적의 침입에 노출되었으며 그에 따라 제주에는 방어체계와 관방시설이 들어서게 된 역사적 배경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주로 관방시설에 주목하였으며 3읍성 9진 25봉수 38연대의 위치를 밝히고 그들의 분포양상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서는 관방시설의 위치한 지리적 특성, 축조과정, 관방시설의 형태 등에 주목하여 실질적으로 완성된 제주의 해안 방어체계인 9진 25봉수 38연대의 유기적인 운용체계는 살펴보기 힘들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9진 25봉수 38연대의 유기적인 운용체계를 알아볼 수 있는 연구로는 신호승의 연구가 있다.²²⁾ 신호승은 조선후기 제주의 해안 방어체계에 대해 조선 전기의 육군과 수군의 합동 방어체계에서 육군중심으로 해안 방어체계가 개편되었고 9진 25봉수 38연대의 유기적인 운용체계를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서 확인되는 것은 그동안 다양한 제주의 지역사 자료가 학생들의 교육에 활용되었으며, 제주의 해안 방어체계가 역사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주의 해안 방어체계를 활용한 지역사 학습방안은 장재훈의 연구 외에 중등학교에서 지역사 교육에 활용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탐라순력도』의 제주 해안 방어체계를 활용한 지역사 교수-학습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도록 하겠다.

21) 김명철, 「조선시대 제주도 관방시설의 연구-읍성·진성과 봉수·연대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김일우, 「조선시대 제주 관방시설의 설치와 분포양상」, 『한국사학보』 65, 고려사학회, 2016; 오상학, 「조선시대 제주도 9진성에 대한 역사지리적 고찰- 고지도에 표현된 내용중심으로」, 『한국고지도연구』 11, 한국고지도학회, 2019.

22) 신호승, 「조선후기 제주도의 관방체계」, 『역사와실학』 59, 역사실학회, 2016.

3.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제주의 해안 방어체계를 활용한 지역사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것이다. 먼저 학습대상을 중학교 학생들로 제한하였다. 조선시대 제주의 해안 방어체계는 정치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근대사를 통사체제로 배우는 중학교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교과서에서도 방어시설의 종류로 읍성과 봉수에 대한 서술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학습하기가 적절하다. 아울러 제주 해안 방어체계가 지역사 내용으로 타당성을 따져 볼 것이다.

제한된 교육과정과 시수로 운영되는 학교에서 효율적인 역사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교육내용을 선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사 교육내용으로 선정한 제주의 해안 방어체계가 교육내용으로 적절한지 알아보기 위해 문헌 연구를 종합하여 역사적 가치와 교육내용으로서 타당성을 확인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II장에서는 제주 해안 방어체계를 역사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절에서는 중앙정부에서 해안 방어체계의 중요성을 알아본 후 제주의 해안 방어시설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2절에서는 제주의 해안 방어시설이 어떻게 서로 관련을 맺으며 해안 방어체계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역사 내용으로서의 적절성을 밝히기로 하겠다.

지역사 교육의 내용을 검토한 후에는 지역사 학습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교재인 교과서에서는 지역사 내용이 많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 교육에서는 학습자료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지역사 학습을 위한 학습자료인 사료와 현장 자료를 선정하고 그 안에 있는 교육요소를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사료와 현장 자료를 선정하게 되면 사료를 분석한 제주의 관방유적을 살펴보고 사료의 내용을 토대로 현장유적을 비교·분석하는 학습활동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지역사 자료를 알맞은 방법으로 활용한 지역사 학습방안을 제시하겠다.

그리고 III장에서는 지역사 학습의 교재를 개발해 보고자 한다. 1절에서는 현행 교과서에서 해안 방어시설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분석

하고 지역사 학습에서 교재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2절에서는 사료학습을 위한 지역사 학습 교재로서 『탐라순력도』를 검토할 것이다. 사료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내용과 관련있는 사료를 선정해야 하는데 『탐라순력도』는 총 43면의 그림으로 구성된 화첩으로 당시 제주목사의 순력을 통해 제주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탐라순력도』는 당시 제주의 해안 방어시설을 알아볼 수 있으며 그림으로 되어 있어 학생들이 접하기에도 무리가 없는 자료이다. 3절에서는 현장학습을 위한 지역사 교재로서 현장 자료를 선정하고 선정한 현장 유적을 답사해 교육 요소를 검토할 것이다.

IV장에서는 제주의 해안 방어체계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학습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제주의 해안 방어유적은 곳곳에 분포하고 있으므로 유적을 직접 탐방하는 현장 체험학습의 형태로 학습방안을 구성할 때 효율적인 학습방안이 될 것이다. 현장 체험학습은 보통 사전 학습-현장 학습-사후 학습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1절에서는 전체적인 학습프로그램의 계획과 사전학습으로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사료학습을 통해 제주 해안 방어체계의 개념을 알아보고 사료로 확인하는 현장 답사지를 미리 살펴보는 활동을 할 것이다. 2절에서는 미리 선정한 학습현장을 활용하여 현장학습의 교수-학습 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뤄볼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사 교육에서 중요한 교육내용인 제주 해안 방어체계를 관련된 사료와 현장학습으로 역사가의 활동과 동일한 방법을 통해 지역사 학습을 진행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제주 해안 방어체계를 이해하고 역사적 사고력의 하위 요소인 역사적 상상력과 탐구기능이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제주 해안 방어체계의 역사적 검토

1. 조선의 왜구 대응 정책과 제주의 관방시설

고려 말 조선 초에 활동했던 倭寇는 일본 남북조시대에 몰락한 무사계급이나 영세민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양곡 약탈과 인민 노략 등 주로 생활필수품을 얻기 위해 해적활동을 하였다.²³⁾ 고려 말 왜구는 해마다 엄청난 규모로 고려에 침입하였으며 약탈, 살인, 방화 등 온갖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 왜구는 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내륙 지역과 개경 근처까지 침입하여 피해를 주었다. 특히 조운 체계에도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고려 말 왜구 대응 정책은 상당히 중요하였다. 조선 초에도 왜구의 출몰은 지속되었기 때문에 왜구 대응 정책은 새로 건국된 조선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고려 말의 왜구 대응 정책은 침입해 온 왜구를 격퇴하는 등 주로 군사적인 대응이었다. 반면에 조선왕조는 온건한 회유책과 강경한 군사적 대응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왜구 침입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먼저 조선에서는 왜구 대응 정책으로 외교적 차원의 왜구 금압을 요청하였다. 조선의 태조는 즉위 초 일본의 무로마치(室町)막부에 사신을 보내 왜구 금지를 요청하였고 왜구에게 영향력을 가진 서국 지방의 일본 호족들에 대해서도 왜구 진압을 요구하였다.²⁴⁾ 조선의 태조는 왜구 진압과 피로인 송환에 적극적인 일본의 호족들에 대해서 통교상의 특혜를 주고 조선의 관직을 하사하는 授職制度를 활용하였다.²⁵⁾ 따라서 막부와 서부지역의 호족들은 왜구 진압에 노력하고 피로인의 송환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왜구 중에서도 조선으로 투화한 자에게는 토지·재물·주택 등을 주고 조선에 살도록 해주었다.²⁶⁾

이로 인해 왜구는 크게 줄었지만 조선정부에게는 회유책으로 인해 두 가지 문

23) 하우봉, 『한국사』 22, 국사편찬위원회, 1995, 373-374쪽.

24) 김보한, 「고려·조선의 금구외교와 일본의 대응」, 『한일관계사연구』 66, 한일관계사학회, 2019, 23쪽.

25) 김보한, 위의 논문, 2019, 26쪽.

26) 하우봉, 위의 책, 1995, 375-376쪽.

제점이 발생하였다. 첫 번째는 회유책으로 인한 국가 재정지출이 많아졌다. 외교적 교섭을 통해 일본 사신들이 조선에 자주 방문하게 되었는데 조선에서는 倭館을 설치하고 각종 연향접대를 하였다.²⁷⁾ 또한 사신단과 함께 조선으로 건너온 선원들은 삼포에 머물게 하였고, 삼포에서는 이들 선원들에게 급료를 지급하였는데 삼포에서 지출되는 倭料의 대부분은 바로 선원들에 대한 급료였다.²⁸⁾ 성종 때에는 3년간 각종 왜료가 4만석에 이를 정도로 그 비용이 막대하였다.²⁹⁾ 조선에서는 이렇게 일본사신 방문에 대한 비용을 모두 전담했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었다.

두 번째 문제는 조선에 들어오는 투항왜인이 늘어남으로써 그들에 의한 안전상의 위협 문제였다. 조선으로 건너온 통교왜인들이 삼포에 머물고 있었는데 조선의 해안지방을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무역문제가 발생했다.³⁰⁾ 이러한 이유로 조선의 회유책은 왜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왜인에 대한 왜료가 줄어들면 언제든지 왜인은 침략자로 돌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삼포에 왜인이 많이 왕래하여 안전상의 위협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해안 방어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했다.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대응은 왜구의 본거지를 공격하는 정벌이었다. 고려 말에도 회유책이 잘 활용되지 못해 고려는 이미 왜구 정벌을 위해 대마도를 점령한 바 있었으며,³¹⁾ 조선도 대마도를 정벌을 한 적이 있었다. 왜구에 대한 최후의 정벌은 1419년(세종 원년)의 대마도 정벌이었다. 같은 해 5월 대마도인들의 침략이 있었는데, 정벌군 규모가 227척의 전선과 17,285명의 병력으로 구성될 정도로 대대적인 정벌이었다.³²⁾ 그러나 조선의 원정군과 왜구의 주축 세력간의 결전

27) 한문중, 「조선전기 왜관의 설치와 기능」, 『인문과학연구』32,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253쪽.

28) 소순규, 「조선 초기 왜료(倭料) 규모의 증가와 제도적 대응」, 『조선시대사학보』69, 조선시대사학회, 2014, 74쪽.

29) 『성종실록』 권77, 성종 8년 윤2월 11일 “慶尙道軍需, 雖曰不裕, 丙申年冬等 會計之數一百六十五萬六千八百三十餘碩, 同年一半州倉加納七千二百七十餘碩, 三浦倭料二萬二千三百九十餘碩, 國屯田所出, 監司及各官補添亦多, 年年如此儲備, 雖不大裕, 亦非不足.”

30) 한문중, 위의 논문, 2012, 253쪽.

31) 『고려사』 권116, 열전29 박위 전, “又擊倭于高靈縣, 斬三十五級. 又以戰艦百艘, 擊對馬島”

32) 『세종실록』 권4, 세종 1년 6월 17일, “兵船: 京畿十艘, 忠淸道三十二艘, 全羅道五十九艘, 慶尙道一百二十六艘, 摠二百二十七艘. 自京赴征諸將以下官軍及從人, 并六百六十九, 甲士 別牌 侍衛 營鎮屬及自募強勇雜色軍 元騎船軍, 并一萬六千六百六十六, 摠一萬七千二百八十五, 齎六十五日糧以行.”

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선에서 정벌 직후 대마도 수호에게 회유하는 글을 보낸 것으로 보아 대마도를 적극적으로 정벌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³³⁾ 조선은 대마도를 대대적으로 공략함으로써 이후 왜구가 복수로 침략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연해지역에 대한 방비는 불가피하였다. 결국 회유책과 군사적 대응을 병행하여 효과적으로 왜구의 침입을 저지하려고 하였던 조선정부에서 가장 중요했던 일은 해안 방어체계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으로 왜구는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그리고 조선정부에서는 애초에 왜인들을 믿을 수 없다는 인식과 연해지방의 철저한 해방체계 구축만이 항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안 방어정책은 왜구 대응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였다.³⁴⁾

왜구가 줄어들어도 해안방어정책의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왜구가 줄어들면서 연해지방이 개발되어 연해지방과 해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여말선초에는 연안 지역과 海島에 있는 섬에 사람이 살지 않고 주민들을 육지로 이주시키는 쇠환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섬을 비우는 空島化 조치는 섬을 필요 없는 땅이라 생각하여 모든 섬에 있는 백성들을 육지로 쇠환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왜구를 피하기 위한 긴급조치로 특정한 섬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인 성격이 강했다.³⁵⁾ 또한 섬을 비우고 그 섬을 1~3년에 한 번씩 돌아보면서 섬의 형편을 조사하는 수토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섬을 필요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영토로 인식하였다.³⁶⁾ 그밖에 다양한 공도화 조치의 원인들이 있는데 크게 국역을 회피하여 섬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현실론과 백성들이 농업을 기피하고 末業(어염이나 목축 등)에 종사하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공도화 조치를 시행하였다.³⁷⁾

그러나 세종대의 대마도 정벌로 인해 연해지역은 급속도로 안정화되었고 연안 지역과 해도의 토지가 다시 개척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정부는 소나무의 서식지로

33) 이규철, 「1419년 대마도 정벌의 의도와 성과」, 『역사와 현실』 74, 한국역사연구회, 2009, 443-444쪽.

34) 육군군사연구소, 『한국군사사』 14, 경인문화사, 2012, 312쪽.

35) 신명호, 「조선 초기 중앙정부의 경상도 해도정책을 통한 공도정책 재검토」, 『역사와 경계』 66, 부산경남사학회, 2008, 10쪽.

36) 손승철, 「조선시대 ‘공도정책’의 허구성과 ‘수토제’ 분석」, 『이사부와 동해』1, 한국이사부학회, 2010, 293쪽.

37) 강봉룡, 「바다로 보는 한국사」, 『역사학보』 232, 역사학회, 2016, 181쪽.

혹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섬에 목장을 짓는 등 섬을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섬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인식으로 바뀌었다.³⁸⁾ 해도와 연해 지역이 사람이 사는 곳으로 바뀌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읍성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 왕조의 해방체계가 매우 중요해졌다. 이후 임진왜란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대규모 침입으로 인해 조선후기에도 해안방어정책이 매우 중요하였으며 이양선의 출몰 등으로 조선시대 내내 해안방어정책은 조선의 국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조선전기 제주에도 왜구를 대비하기 위해 관방체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제주는 한반도 남쪽에 있는 섬으로 북쪽 완도와와의 거리는 81km, 북동쪽 부산과의 거리는 286.5km이며, 동쪽 일본 대마도와는 255.1km, 서쪽 중국 상하이와는 528km 떨어져 있다. 제주는 북쪽으로 한반도, 남쪽으로는 琉球제도와 臺灣, 동쪽으로는 일본의 규슈지방, 서쪽으로는 중국 대륙과 마주하고 있다.³⁹⁾ 따라서 제주는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권을 잇는 바닷길 요충지이며 교류가 활발해 외침에도 자주 노출되는 지역이었다.⁴⁰⁾

제주에 대한 지정학적 중요성은 과거부터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이를 역사적으로 보면 원나라 황제 쿠빌라이가 남송과 일본정벌을 고민하던 중 제주를 남송과 일본을 잇는 바닷길의 요충지로 주목하였다.⁴¹⁾ 또한 을묘왜변 당시 국제적인 성격을 띄고 있었던 왜구가 제주에 계획적으로 침략하였다. 이들은 제주를 전라도-제주도-북구주를 잇는 해상권을 장악하기 위한 요충지로 보고 제주를 중간기지로 삼으려고 하였던 것이다.⁴²⁾ 따라서 제주는 역사적으로도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상교통로이자 그 지정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라 여겨져 왔다.

조선조정 입장에서도 제주는 매우 중요한 섬이었다. 제주를 잃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조선조정의 수군에 의한 해안 방어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초기부터 왜구를 경계하여 남해안 연안에

38) 강봉룡, 앞의 논문, 2016, 182-184쪽.

39) 오상학, 「조선시대 제주도 9진성에 대한 역사지리적 고찰」, 『한국고지도연구』 11, 한국고지도연구학회, 2019, 58쪽.

40) 김일우, 「조선시대 제주 관방시설의 설치와 분포양상」, 『한국사학보』 65, 고려사학회, 2016, 287쪽

41) 전영준, 「13~14세기 元の 목축문화 유입과 제주사회의 변화」, 『제주도연구』 40, 제주학회, 2013, 54-55쪽.

42) 김동전, 「왜구의 침입과 방어시설」, 『제주도지』 2, 제주특별자치도, 2006, 387쪽.

관방시설을 설치하고 수군을 강화하였다. 임진왜란 때에도 조선수군이 남해안을 방어하여 전라도를 지켜냈고 일본군이 서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방어해냈기 때문에 조선은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은 일본의 대규모 침략을 우려하여 그에 대한 방어 전략으로 남해안의 수군을 강화하는 방법을 통해 일본의 침입을 막아내려 하였다. 당시 일본이 조선으로 들어오는 경로는 임진왜란 당시 이용했던 대마도를 거쳐 부산에 이르는 경로로 조선정부는 일본이 대규모 침략일 경우 이 경로가 가장 높다고 생각했다.⁴³⁾

따라서 17세기를 전후로 해서 통제영과 통제사의 권한이 강화되고 영남과 호남의 수군이 강화되는 등 조선은 수군을 통한 해안 방어체계를 강화하였다.⁴⁴⁾ 이러한 전략은 전근대의 선박이 원해를 가로질러 항해하는 것이 어려우며 남해안의 섬들을 기점으로 서해로 나아가는 항해에 따른 일본의 상황을 이해하고 대비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제주를 점령하면 남해를 거치지 않고 서해로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선수군의 해방정책에서 제주를 군사적 요충지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⁴⁵⁾

두 번째 문제는 제주가 조선의 군마공급지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제주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오름과 목초지로 인해 말을 키우기 위한 최선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고려시대 이전부터 말을 활발하게 키워왔는데 원나라에 의해 탐라목장이 건설되면서 제주에는 많은 수의 말이 키워지기 시작했다.⁴⁶⁾ 조선시대에는 남쪽의 왜구와 더불어 북쪽의 야인의 침입에 항상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기병이 필요했다. 따라서 제주를 매년 엄청난 양의 공마를 중앙정부로 진상하였다. 이러한 제주를 외부세력에게 잃게 되면 전마를 적에게 빼앗김과 동시에 조선의 기병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제주를 조선조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섬이었다.

이에 제주를 조선전기에 관방시설이 설치되고 관방체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왜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해 지역에 중점적으로 邑城을 축조하였다. 기존의 산성입보 정책에 비하여 읍성을 활용한 방어정책은 많은 이익

43) 송기중, 「17세기 수군방어체계의 개편」, 『조선시대사학보』 53, 조선시대사학회, 2010, 10쪽.

44) 송기중, 위의 논문, 2010, 9-21쪽.

45) 신호승, 「조선 후기 제주도의 관방체계」, 『역사와 실학』 59, 역사실학회, 2016, 106쪽.

46) 전영준, 위의 논문, 2013, 55-56쪽.

을 가져다 주었다. 읍성 주변의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으며 읍성을 통해 지방관아와 주민들의 거주지를 보호할 수 있었다.⁴⁷⁾

읍성이 설치된 읍치는 예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았으며 행정업무를 보는 주민들의 왕래가 잦았기 때문에 문화와 경제 그리고 행정의 중심지였다. 제주에는 1416년(태종 16)에 고려시대부터 주현이었던 제주목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정의현을 본읍으로 설정하고 서쪽으로는 대정현을 본읍으로 삼은 뒤 監務를 파견해 3읍 체제를 완성시켰다.⁴⁸⁾

먼저 제주목에는 과거부터 존재했던 제주성이 읍성이자 읍치였으며 제주성으로 둘러싸여진 곳은 오래전부터 제주의 중심지였다.⁴⁹⁾ 제주 읍성은 행정적인 기능은 물론 군사적인 기능으로도 해안가에 자리 잡고 있는 요충지였다. 제주읍성은 병문천과 산지천 사이에 있어 이를 천연해자로 이용하였으며 성안에 물이 없어 동쪽으로 성을 확장하여 성안으로 가락천과 산지천을 끌어당겨 물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⁵⁰⁾ 또한 방어시설로 웅성·격대·해자·문루 등의 방어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대정읍성은 대정현 관아를 둘러싼 성이다. 대정현은 제주의 서남부 일대를 관내로 거느렸으며 읍치이자, 읍성으로 둘러싸였던 곳은 대정읍 인성-안성-보성리 일대에 걸친 지역이었다.⁵¹⁾ 대정읍성은 바다와 10km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해안지역에 위치하지 않고 내륙에 위치하였다. 성의 형태도 방어에 유리한 원형이 아닌 장방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방어에 취약하였다. 따라서 대정읍성은 행정적인 기능을 위해 읍성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곽의 부속시설인 해자와 웅성, 그리고 치성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기능도 겸할 수 있는 읍성이었다.⁵²⁾

정의현의 경우에도 정의읍성이 설치되었다. 정의읍성은 처음 설치될 때 그 관아가 들어선 읍치였던 성산읍 고성리 일대에 읍성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곳은

47) 육군군사연구소, 앞의 책, 2012, 303쪽.

48) 김일우, 「고려시대와 조선초기 제주도 지역의 행정단위 변천」, 『한국중세사연구』23, 한국중세사학회, 2007, 308-309쪽.

49) 김일우, 앞의 논문, 2016, 293쪽.

50) 김명철, 「조선시대 제주도 관방시설의 연구-읍성·진성과 봉수·연대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4-18쪽.

51) 김일우, 앞의 논문, 2016, 294쪽.

52) 김명철, 위의 논문, 2000, 25-27쪽.

정의현의 동쪽에 치우쳤고 읍치가 관할 영역의 각 지역과 너무 거리가 멀어 주민들의 행정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을 겪었기 때문에 자주 읍성의 위치변경이 논의 되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정의현의 읍치를 지금의 표선면 성읍리에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읍성을 쌓았다.⁵³⁾

이러한 정의읍성의 위치변경을 통해 읍성의 기본적인 기능은 행정적인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읍성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정읍성과 마찬가지로 웅성·치성 등 각종 방어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⁵⁴⁾

<표 2> 읍성 축조와 규모⁵⁵⁾

| 구분 | 성곽명 | 축조시기 | 축조자 | 둘레 | 높이 |
|----|------|---------------|--------|----------|--------|
| 3성 | 제주읍성 | 1408년(태종 8)이전 | - | 약 2,280m | 약 3.3m |
| | 정의읍성 | 1423년(세종 5) | 판관 최지렴 | 약 900m | 약 3.9m |
| | 대정읍성 | 1417년(태종 17) | 현감 유신 | 약 1,467m | 약 5.1m |

두 번째, 제주에 해안 방어시설로 鎭城이 있다. 진성은 외적의 침입에 대응하는 군사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로 관방 상의 요충지에 설치되었다. 제주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상륙이 필수였다. 그러나 해안선이 화산암으로 형성되어 있었고 큰 포구가 발달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해안방어의 중요역할은 주요 포구를 수호하는 것이다. 진성은 주요 포구 옆에 수축되어 해안 방어의 요충지로 삼았던 것이다.⁵⁶⁾ 따라서 진성의 위치는 해안가에 자리잡고 있는 연해형 진성이 화북진성·조천진성·명월진성·별방진성·서귀진성 등 모두 5개가 있으며, 육지와 바다가 연결되었던 육계도형진성으로 조천진성과 모슬진성 등 2개가 있었다. 9개 중 7개의 진성이 해안가에 위치해 있어 상륙지점 차단과 포구를 보호하고 있고, 이들 7개의 성은 형태가 방어에 유리한 타원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진성의 주 역할은 군사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수산진성과 차귀진성은 내륙에 위치해 있는데 수산진성은 3.5km, 차귀진성은 1.3km 정도 바다와 떨어져 있다. 따라서 이들 진성은 예전부터 수차례 이설에 관

53) 『세종실록』 권4, 세종 4년 12월 23일, “移築旌義城於晉舍里.”

54) 김명철, 앞의 논문, 2000, 22-23쪽.

55) 김두영, 「조선시대 도서지역 읍성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10-22쪽.

56) 오상학, 앞의 논문 2019, 58쪽.

한 논의가 지속되었다. 수산진성은 다른 지역과 달리 해안을 방어하기 위한 성으로 적합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해나갔다. 차귀진성 또한 해안방어에 유리한 요충지가 아니라 넓은 벌판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험파하자는 논의가 있었다.⁵⁷⁾ 이 두 개의 진성은 군사적 기능 이외에 읍성의 기능 곧 읍치의 행정적 관할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원형이 방어에 쉬운데도 불구하고 이들 두 진성만 성의 형태가 방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들 진성이 군사적인 기능은 물론 행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시사한다.⁵⁸⁾

9개의 진성에는 행정업무를 보는 객사와 창고가 모두 존재하였다. 별방진성과 명월진성에는 우물이 있었지만 나머지 진성에는 물이 없어 방어가 불리하였다. 그러나 진성은 군사적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웅성·치성·해자 등 다양한 방어시설이 존재하였다. 다음의 <표 3>에서 9진성의 초축 및 개축의 경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제주 9진성의 축조시기와 현황⁵⁹⁾

| 성곽명 | 시축 | | 개축 | | 현, 지적도 및 실측 추정치 |
|------|--------------------------------|-----------------|--------------|--------|-----------------|
| | 시기 | 축조자 | 시기 | 축조자 | |
| 화북진성 | 1678년(숙종4) | 목사 최관 (윤창형?) | | | 187m |
| 조천진성 | 세종21년(1439) 이전 | ? | 선조23년(1590) | 목사 이육 | 128m |
| 별방진성 | 중종5년(1510) ~ 중종25년(1443) | 목사 장림 | | | 960m |
| 애월진성 | 고려시대 | 삼별초 | 선조14년(1581) | 목사 김태정 | 245m |
| 명월진성 | 중종5년(1510) ~ 중종25년(1443) | 목사 장림 | 선조24년(1591) | 목사 이경록 | 1,360m |
| 수산진성 | 세종21년(1439) ~세종25년(1443) | ? | 선조32년(1599) | 목사 성윤문 | 544m |
| 서귀진성 | 중종5년(1510) ~ 중종25년(1443) | 목사 장림 | 선조 23년(1590) | 목사 이육 | - |
| 모슬진성 | 숙종2년(1676) | 목사 윤창형 | | | - |
| 차귀진성 | 세종21년(1439) ~세종25년(1443) | ? | 효종3년(1652) | 목사 이원진 | 620m |

57) 『제주순무어사서계』

58) 김일우, 앞의 논문, 2016, 298-299쪽.

59) 오상학, 앞의 논문, 2018, 62-88쪽 참조하여 구성.

한편, 제주의 관방시설 중 관측시설로는 봉수와 연대가 있다. 봉수는 불[烽]과 연기[燧]를 이용하여 국경과 해안가 최전방의 상황을 상시로 중앙에 알리기 위한 과거의 통신제도로 낮에는 연기, 밤에는 횃불을 들어 통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봉수를 이용하게 되면 직접 가서 소식을 전하는 것보다 시간적으로 단축되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지방의 급박한 상황, 국경지방 적의 동태를 상급기관에 연락할 수 있다.⁶⁰⁾ 따라서 봉수는 지대가 높은 지역에 위치하였는데 제주에는 주로 해안에 인접한 오름에 설치되었다. 제주에 설치된 봉수는 총 25개소로 22개소가 해발 200m 이하의 해안지대에 설치되었다. 3곳의 봉수인 만조, 호산, 자배봉수가 200m 이상의 중산간 지대에 해당한다.⁶¹⁾

煙臺는 지방의 해안과 변경지역의 최일선에 설치된 연변봉수를 말한다. 따라서 연대는 봉수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적의 침략 때에 자체적으로 응전하고 방어해야 했다.⁶²⁾ 따라서 연대는 단순히 통신기능만이 아니라 요새기능을 갖고 있어 자체방어와 지역 주민들에게 위협을 알리는 정보제공 기능을 함께 수행하였다. 또한 적선의 이동방향과 행동을 관찰하는 임무도 있었다. 제주에는 해안가에 있는 구릉지대에 연대가 주로 설치되었다. 총 38연대가 있는데 해안과 200m 이내의 연대가 72%를 차지하며, 가장 먼 것이 550m정도 되는 말등포 연대로 대부분은 해안에 붙어 있다고 할 수 있다.⁶³⁾

마지막으로 관방시설인 환해장성이 있다. 환해장성은 바다를 둘러싼 장성이라는 뜻으로 해안가에 축조된 장성이다. 환해장성은 다른 관방시설과 달리 고려시대에 쌓았는데 최초의 축조자는 고려정부이다. 삼별초가 진도를 점령하고 난을 일으키자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 고려 원종대에 영암부사 김수와 고여림을 시켜 장성을 쌓은 것이 시초이다.⁶⁴⁾ 그러나 고여림은 9월 신축(4일)에 진도를 공략하고 있었다. 이로써 보면 고여림은 빨라야 9월 중순에 제주에 파견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삼별초군이 11월에 제주를 함락시켰기 때문에 고려 정부에 의한 수축은 1달 남짓임으로 환해장성은 이후 삼별초 군에 의해서 축성되었음을 알 수 있

60) 김명철, 앞의 논문, 2000, 79쪽.

61) 김일우, 앞의 논문, 2016, 297쪽.

62) 고재원, 『제주시 방어유적: 연대 · 봉수 조사연구』, 제주시 한국자치경제연구원, 2012, 27쪽.

63) 김일우, 앞의 논문, 2016, 305쪽.

64) 『신증동국여지승람』, 제주목, 고적조,

다.⁶⁵⁾

그러나 삼별초의 제주 입거 기간이 짧았으며 여몽연합군의 공격이 압박한 상황에서 300여 리에 달하는 장성을 축조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삼별초군이 거점지인 향파두리성을 배후로 하는 지역과 화북포와 조천포를 중심으로 적이 상륙하기 손쉬운 곳을 선택적으로 골라 축조하였다.⁶⁶⁾ 따라서 곤을동, 별도, 삼양, 조천 애월 등에 남아 있는 환해장성은 고려시대 삼별초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환해장성은 삼별초의 방어 전략과는 전혀 상관없는 성산이나 온평 등지에 여러 개소에 분포하고 있다. 환해장성은 삼별초의 항복 이후에 왜구의 방비 등을 위한 용도로 활용되었을 것이며, 조선시대 계속해서 증축하여 왜구 방비의 주요 시설로써 기능했을 것이다.⁶⁷⁾ 다음의 <표 4>는 환해장성의 소재지와 잔존 현황이다.

<표 4> 환해장성 소재지와 잔존 현황⁶⁸⁾

| 명칭 | 소재지 | 잔존현황 | 비고 |
|----------|-------------------------------|---|-------------------------|
| 곤을동 환해장성 | 제주시 화북1동 4363외 10필지 | ▶ 140m잔존 ▶ 성 잔존 높이 3.0~3.8m ▶ 형태 궁형, 여장 단일경사 가까움 | 고려후기 ~조선시대 |
| 별도환해장성 | 제주시 화북1동 1533-1외 16필지 | ▶ 620m잔존 ▶ 성 잔존 높이 2.3~2.5m ▶ 단일경사의 내벽형태, 크고 작은 자연석 협축 | 고려후기 ~조선시대 |
| 삼양환해장성 | 제주시 삼양3동2622-1외 12필지 | ▶ 280m 잔존 ▶ 성 잔존 높이 1.5~2.3m | 조선시대 |
| 애월환해장성 |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1947-1외 17필지 | ▶ 360m잔존 ▶ 성 잔존 높이 2.5~5.0m ▶ 현무암 자갈돌 허튼층쌓기, 내부 잡석 채움방식 | 고려후기 ~조선시대 |
| 북촌환해장성 |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393-3외 7필지 | ▶ 263m잔존 ▶ 성 잔존 높이 3.0~3.8m 내 외벽 단일경사 ▶ 현무암 자연식 허튼층쌓기, 내부 잡석 채움방식 | 조선시대 ~이양선출 몰기(개축) |
| 동북환해장성 | 제주시 구좌읍 동북리 687-2외 8필지 | ▶ 150m잔존 ▶ 성 잔존 높이 2.0~3.2m ▶ 단일경사의 내벽형태, 크고 작은 자 연석 협축 | 조선시대 ~이양선출 몰기(개축) |
| 행원환해장성 |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80-3외3필지 | ▶ 성잔존높이 1.5~2.0m ▶ 자연석 쌓기의 협축, 잡석채움 방 | 조선시대 ~이양선 |

65) 윤용혁, 「고려 삼별초의 제주 항전」, 『제주도연구』 11, 제주도연구회, 1994, 50-51쪽.

66) 전영준, 「삼별초의 향파두리 토성 입거와 전략적 활용」, 『역사민속학』 47, 한국역사민속학회, 2015, 214-215쪽.

67) 전영준, 위의 논문, 2015, 215쪽.

| | | 식 | 출몰기 |
|-----------------|--|--|-------------------|
| 한동환해장성 |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693-4외 9필지 | ▶ 290m 잔존 ▶ 잔존높이 3.0~3.8m, 현무암 자갈 돌 허튼층쌓기, 내부 잡석 채움방식 | 조선시대 ~이양선 출몰기(개축) |
| 온평환해장성 (제1~4)지점 |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66-2외 1필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693-1외 1필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1220-2외 3필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1303-3외1필지 | ▶ 2,120m잔존(최장) ▶ 온평리 하동해변가~신산리 경계 해안따라 축성 ▶ 성 잔존높이 2.0~3.5m, 지반 인근 천석, 괴석, 할석 등의 다짐, 상단부 4~7겹 천석의 엇갈림 공법 ▶ 여장, 회곽도, 계단 등 잘 나옴 | 조선시대 ~이양선 출몰기(개축) |
| 신산환해장성 |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49-5외 1필지 | ▶ 600m잔존 ▶ 온평리 환해장성의 연장선상 ▶ 성 잔존 높이 2.0~2.5m ▶ 현무암 자갈돌 허튼층쌓기, 내부 잡석 채움방식 | 조선시대 ~이양선 출몰기(개축) |

2. 제주 해안 방어시설의 상호 유기적 관련성

조선전기 제주에는 3성 9진 25봉수 38연대라는 관방시설이 설치되었으며, 水戰所가 존재해 수군을 활용한 해안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수전소는 제주에 총 12개 정도 존재하였는데 주로 수심이 깊은 포구에 설치되었다. 수전소는 전선과 군사를 보유하여 외적을 방비하였으며 공납물과 각종 진상품을 중앙으로 진상하는 임무를 수행했다.⁶⁹⁾

관방시설과 수전소의 존재로 제주는 육군과 수군이 함께 제주를 방어하는 해안 방어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후기 제주에는 수군이 철폐되면서 기존의 육군과 수군의 함께 방어체계를 형성하던 것에서 육상방어체계로 변화하게 된다. 이는 같은 시기 중앙정부에서 연해지역에 수군을 대폭 강화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다.

제주 해안 방어체계에서 수군을 활용한다면 적의 聲東擊西와 같은 기만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수세적인 방어 전략에서 벗어나 상황에 따라서 적선을 추격하고 공격하는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구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주의 관방에서도 육군과 수군이 함께 방어하는 전략이 효과적인 전략이었다.⁷⁰⁾ 그럼에도

68) 김일우, 앞의 논문, 2016, 291-292쪽.

69)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 관방조, “諸所皆有戰船 又有軍 更番分戍 凡貢膳物輸渡海.”

70) 신효승, 앞의 논문, 2016, 119쪽.

도 불구하고 제주에서 수군이 사라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제주 수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이다. 조선전기에는 주로 왜구에 초점을 맞춰서 방어체계를 기획했다면 조선후기에는 임진왜란 이후 일본의 대규모 침입을 우려해 방어체계를 구상하였다. 조선 정부는 남해안 지역의 섬을 활용한 수군방어체계를 만들었는데, 제주는 남해안과 달리 주변에 섬이 많지 않다. 남해안의 경우 따로 떨어져 있는 수군들을 한곳으로 모아 대규모 적에 대한 대비할 수 있지만, 제주는 적이 대규모로 올 경우 제주에 주둔하고 있는 수군이 단독으로 큰 바다에서 맞서 싸워야하기 때문에 수군을 활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어 전략이 될 수 없었다.

수군의 효율성 문제는 조선의 배인 板屋船과 왜선의 구조에서도 그 원인을 알 수 있다. 배 바닥이 평평한 평저선으로 되어 있는 판옥선은 120명이 승선하고 2층의 결판과 3층의 전투원을 구분하는 등 구조와 선체가 높아서 적이 쉽게 오를 수 없는 특징을 가진 군선이며⁷¹⁾ 함선자체가 왜선보다 훨씬 컸다. 반면에 일본의 倭船은 밑바닥이 뾰족한 침저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저선과 침저선은 선수의 침수면적인 동일하지만 평저선이 침저선에 비해 물에 닿는 넓이와 깊이가 크다. 또한 판옥선이 왜선보다 크기가 컸고 무게가 무거웠기 때문에 물에 닿는 면적이 더 넓어져 마찰저항이 더 커진다.⁷²⁾ 곧 판옥선은 왜선보다 직진성능 즉 속도가 뒤지게 되어 왜선이 제주로 침입해왔을 때 추격하여 공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두 번째 문제로는 수군운용에 대한 병력 부족현상이다. 제주는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으며 방어해야 할 지역이 많았지만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어 군사력 확보에 늘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제주를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당시 전국적으로 운용되었던 保法の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받았으며 番上에서도 제외되었다.⁷³⁾ 또한 위급상황에서 육지의 지원을 받기도 매우 어려웠다. 제주에서 봉화를 통해 전라도에 지원요청을 하여도 육지에서 병력을 파견하는데 2주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었다.⁷⁴⁾ 조선전기 정부에서는 제주의 상황을 고려하여 호남원병의 지원대책

71) 육군군사연구소, 『한국군사사』 5, 경인문화사, 2012, 427쪽.

72) 이호태, 정호근, 「평저선과 침저선의 직진성능, 선회성능, 및 풍랑에 대한 저항성능 연구」, 『현장과 과학교육』 2, 한국현장과학교육회, 2008, 115쪽.

73) 김기동, 「17세기 제주도의 육군 재건과 방어체계 변화」, 『한국사학보』 74, 고려사학회, 2019, 323쪽.

74) 신호승, 앞의 논문, 2016, 121쪽.

을 마련하여 제주에 파견하였다. 전라도에서 파견되는 지원병은 임진왜란 직전까지는 기병 500명, 임진왜란 이후에는 기병 300명의 원군을 파병하여 제주를 지원하고 있었다.⁷⁵⁾ 그러나 이러한 지원병 제도도 1620년(광해군 12)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 시기에 북방에서는 후금이 사르후 전투에서 승리하여 조선에 큰 위협이 되었고 일본의 위협은 양국사이의 교섭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조정은 북방의 방어에 전념하고자 전라도 지원병을 폐지한 것이다.⁷⁶⁾

이러한 조치는 제주의 방어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제주는 섬 자체의 역량을 동원하여 제주의 방어를 담당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있었던 17세기 제주에는 태풍·가뭄·한파 등이 다른 시기보다 급증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⁷⁷⁾ 이에 제주인들은 식량이 없어 파종해야 할 종자를 먹어버리거나 소나 말을 잡아 먹기도 하였고 사람들끼리 잡아먹을 조짐도 보였다.⁷⁸⁾ 따라서 인구가 감소하고 군사를 동원하기 어려웠으며 女丁이라는 여성 군인을 동원해 성을 지키게 할 정도로 남성의 수가 부족했다.⁷⁹⁾ 또한 수군은 선상에서 근무하여 더위와 추위에 노출되어 있으며 바닷가의 습기와 선상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오는 공동생활로 전염병에 상당히 취약했다.⁸⁰⁾ 특히 수군에서 복무하는 역군 등의 힘든 일은 예로부터 상당히 힘든 병종으로 여겨졌다. 더욱이 수군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드는데 주민들이 먹을 식량도 없었기 때문에 수군을 운용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로 제주에서는 수군이 폐지되고 육상전력만을 활용하여 제주 해안 방어체계를 운용하였다. 육상전력만으로 적을 상대하기 때문에 제주에 설치되어 있는 관방시설들이 더욱더 중요해졌다. 우선 적의 침입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관방시설 중 감시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봉수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적을 발견할 수 있어 봉수에서부터 제

75) 임승희, 「조선후기 제주지역 지방군의 편제와 실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16-17쪽.

76) 이원진, 『탐라지』, 「제주목」, “ 湖南移轉數 每年一千石 … 盖爲援兵三百八十三名糧餉 而設也. 萬曆庚申 移轉及援兵革罷”.

77) 진관훈, 「조선후기 제주사회의 빈곤과 구빈활동」, 『탐라문화』 4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2, 339-340쪽.

78) 신효승, 앞의 논문, 2016, 120쪽.

79) 김일우, 「고려·조선시대 외부세력의 제주진입과 제주여성」, 『한국사학보』 32, 고려사학회, 2008, 163-164쪽.

80) 육군군사연구소, 앞의 책, 2012, 407-408쪽.

주의 해안 방어체계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북쪽 오름에 설치된 봉수들은 맑은 날을 기준으로 제주 지역으로 들어오는 배들을 추적하기 쉽고 남해안 지역의 섬들도 관측할 수 있었다.⁸¹⁾ 배를 대상으로 한 봉수의 관측거리는 약 50km정도가 되기 때문에 봉수를 이용한 관측은 멀리서 제주에 접근하는 異船에 대한 감시가 가능했다. 그러나 봉수를 통한 감시체계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 번째는 1개 봉수의 감시 범위가 넓어 소수 선박일 경우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봉수의 중복감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제주에는 봉수가 직선거리가 10km이내에 있으며 총 25개의 봉수가 있어 서로 중복감시를 통해 적선을 잡아내고자 노력하였다.⁸²⁾

두 번째 문제는 제주의 바다는 지형지물이 많지 않아 바다에 떠있는 이선과 제주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봉수만으로는 적선이 어디로 상륙할지, 어디로 이동할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연대의 기능이 매우 중요했다. 연대의 관측거리는 약 10km 정도여서 봉수와 중복감시를 통해 해안을 관측하였다. 그리고 해안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적선의 동향과 상륙지점을 정확히 알 수 있었다.⁸³⁾

이러한 관측을 통해 적선의 유무와 상륙지점을 정확히 알고 나서 진에 있는 병력을 출동시켜 방어진역에 배치하였다. 또한 제주로 침입한 적이 대규모일 경우 제주에 있는 병력을 거점으로 모아서 방어를 해야 하는데 그 거점이 진성이었다. 따라서 진성에서 군사를 모아 방어를 하거나 위급 상황 시 다른 진성을 구원하러 가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그러나 제주의 면적은 상당히 넓으며 해안선이 길고 적이 어디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병력을 평상시 같은 곳에 주둔하기는 어려웠다. 제주에는 3성 9진에 상비군을 두고 그에 대규모 적이 오면 이들이 함께 모여 적과 싸우는 방법으로 적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제주에는 예로부터 말이 풍부하였다. 말을 이용해 군마를 각 읍성과 진성에서 조련하고 위급 상황 시 戰馬를 통해 기동성을 확보하여 다른 진성을 구했다고 할 수 있다. 1702년의 『탐라 순력도』에서 확인되는 제주도 중요 거점지역에서 기르던 마필 수는 8천 8백여

81) 전영준, 앞의 논문, 2015, 210쪽.

82) 신호승, 앞의 논문, 2016, 108-109쪽.

83) 신호승, 앞의 논문, 2016, 111-112쪽.

마리이다. 조점의 장면마다 빠짐없이 점검되었던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의 제주 방어에서는 기병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⁸⁴⁾

기병을 활용하면 유리한 점이 굉장히 많은 데 제주는 상륙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배에 많은 말들을 실어올 수 없었다. 따라서 제주에 침입하는 적군은 기병보다 보병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반면에 제주에서는 기병을 이용한 작전 활용이 효율적이었다. 또한 퇴각하는 적을 쫓아서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병을 활용하면 수세적인 방어 전략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있다.

한편, 봉수-연대-진으로 이어지는 유기적 방어체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환해장성이다. 환해장성은 제주 해안가 중 상륙이 쉬운 해안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다. 환해장성의 주요 역할은 적의 상륙을 방해하는 데에 있었다. 제주의 해안지대는 크게 모래사장인 사질해안과 암석해안으로 나누어져 있다. 전체 해안선 253km 중 사질해안이 21.9km로 전체해안에 약 10% 해당한다.⁸⁵⁾ 적이 제주로 상륙을 위해서는 모래사장이 있는 사질해변이 유리하며 지대가 낮은 암석지대로 들어오고자 하면 많은 제약이 있다. 또한 서귀포를 기준으로 하는 남쪽 해안과 애월 일부 지역에 해안절벽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해안절벽으로는 적이 상륙할 수 없다. 이러한 해안지형 때문에 제주에는 상륙할 수 있는 해안이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적의 예상 상륙지에 환해장성을 쌓는다면 적의 상륙을 방해할 수 있으며 관방에서 많은 유리함을 얻을 수 있었다. 아울러 환해장성은 우선 제주에 상륙하려는 적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었다. 환해장성은 규모가 거대한 성이기 때문에 적의 침입을 제일 먼저 저지하는 1차 저지선의 역할을 했다. 또한 환해장성은 조선후기로 가면서 전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적이 배에서 육지로 공격하는 함포사격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조선시대 제주의 해안 방어체계는 9진 25봉수 38연대와 환해장성이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러한 관방시설들은 개별적으로 보아도 훌륭한 방어시설이지만 서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시설의 도움을 받을 때 하나의 완성된 해안 방어체계가 되었다.

84) 참고로 국가 제사에 희생으로 길러졌던 흑우는 약 800수 정도였다.

85) 김태호, 「제주도의 해안지형」, 『탐라문화』 18,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7, 386쪽.



Ⅲ. 『탐라순력도』의 지역사 학습 자료 가치

1. 지역사 자료 개발의 필요성과 교수—학습 방향



지역사 학습에 대한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 분산적 접근 방법과 주제 접근 방법이 있다. 분산적 접근 방법은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라 본시 학습에서 해당 내용과 관련된 지역사 자료를 활용하여 본시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 방법이다. 주제 접근 방법은 지역사 자료를 하나의 주제로 내세워 지역사 자료를 중심으로 역사적 사실을 탐구하게 하는 방법이다.⁸⁶⁾

지역사 학습에서 분산적 접근 방법을 사용한다면 일반적으로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지역사 자료를 제시할 때 교과서 안에 있는 서술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해안 방어시설에 대한 서술을 먼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현행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해안 방어시설 관련 서술이다.

<표 5> 역사교과서의 해안 방어시설 서술 및 삽화, 그림

| 출판사 | 서술내용 | 삽화, 그림 |
|-------|--|--|
| 금성출판사 | 현재까지 남아 있는 조선의 해미 읍성(충남 서산) 읍성은 지방의 고을마다 외적을 방어하기 위해 성벽으로 둘러싼 도시로 현재의 해미 읍성, 낙안 읍성 등이 남아 있다. |  |
| 동아출판 | 남산 봉수대(서울 중구) 조선은 국경에서 일어난 위급 상황을 중앙에 빨리 알리기 위해 봉수제를 운영하여 국방과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였다. |  <small>◎ 남산 봉수대(서울 중구) 조선은 국경에서 일어난 위급 상황을 중앙에 빨리 알리기 위해 봉수제를 운영하여 국방과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였다.</small> |

86) 송춘영, 「국사교육에 있어서 향토사 교재의 지도방안」, 『역사교육논집』 13, 역사교육학회, 1999, 24-25쪽.

| | | |
|------|---|---|
| 미래엔 | 군사제도와 함께 통신제도도 함께 발전하였다. 국경지대의 위급한 상황을 중앙에 전달하기 위해 봉수제를 두고, 전국 각지에 역참을 설치하여 통신과 물자수송을 원활하게 했다. |  <p>속 봉수대(서울 남산) 지방의 주요 산이다 설치하여 낮에는 연기, 밤에는 불을 피워 멀리 국경 지대의 위급한 상황을 중앙의 목역산(남산)으로 전하였다.</p> |
| 비상교육 | 지방의 각도에서는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가 각각 육군과 수군을 지휘하였다. 또한 위급한 상황을 빠르게 알리기 위해 봉수제를 정비하고, 물자 수송과 통신을 위해 전국 각지에 역참과 원을 설치하였다. | 삽화, 그림 자료 없음 |
| 지학사 | 서술 및 삽화, 그림 없음 | |
| 천재교육 | 국경지역의 긴급한 상황을 전달 하고자 봉수제를 정비하였다. |  |

현행 교육과정에 의해 새로 출간된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모두 6종이다. 6종 중 지학사를 제외한 5개의 출판사에서 조선시대 방어시설에 대한 서술이 있다. 역사 교과서의 방어시설에 대한 서술 내용은 주로 봉수대에 대한 설명이 많으며 총 4개의 출판사에서 봉수대를 설명하고 있다. 동아출판 등 3개의 출판사에서는 사진자료를 첨부하고 있다. 특히 천재교육 교과서에서는 봉수제의 작동원리가 설명되어 있어 조선시대의 봉수제를 알아보는데 도움이 된다.

금성출판사에서는 다른 교과서와 다르게 읍성을 소개하고 읍성의 기능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읍성이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하였음을 서술하면서, 사진자료를 통해 읍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객관과 동헌을 표시하고 읍성이 행정적인 기능까지 함께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방어체계의 원리에 대한 서술 없이 개별 방어시설들에 대한 서술만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봉수에 대한 서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방어체계 혹은 방어시설들의 유기적 관련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어렵다. 또한 교

과서에서 예로 제시하고 있는 유적 또한 제주의 유적을 활용하지 않고 다른 지방에 있는 읍성과 봉수만을 보여주고 있다. 교과서의 서술만으로는 제주의 해안 방어시설을 알아보는데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주 지역사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적절한 학습 자료를 제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 학습에서는 학습자료를 선정하거나 제작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학습자료를 선정하게 되면 어떤 자료를 선정하는가에 따라서 교수-학습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 학습의 자료로 제주 해안 방어유적과 관련이 있는 사료인 『탐라순력도』와 현장 유적을 이용하여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사료학습의 유용성은 역사가가 연구하는 것과 동일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역사가처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⁸⁷⁾ 또한 사료학습은 동일한 내용을 방지하는 것 기능도 있다. 같은 역사적 사실이라도 사료를 통해 학습한다면 역사적 사실을 생생하게 전달하여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으며 학생들이 다양한 사료를 접하면 개방적 태도를 가지게 할 수도 있다.⁸⁸⁾

현장 자료는 주로 유물이나 유적의 형태로 남아있다. 지역사와 관련된 현장 자료의 경우 학생들이 사는 지역 주변에 분포하여 직접 찾아보기가 쉽다.⁸⁹⁾ 현장 자료의 장점은 학생들이 역사를 더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교사의 설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역사를 경험하는 것보다는 직접 현장에 가서 유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함으로써 역사를 더 생생하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다. 또한 유적과 유물은 문헌과 더불어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기본 자료로서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⁹⁰⁾

이러한 사료와 현장 자료를 통한 수업은 현재의 교육과정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 교수-학습 방안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다. 다음은 2018년에 개정된 현행 교육과정의 중학교 역사 교수-학습 방향이다.⁹¹⁾

87) 윤중배, 『역사수업의 길을 묻다』, 휴머니스트, 2018, 257-258쪽.

88) 최상훈 외, 앞의 책, 2007, 145쪽.

89) 송춘영, 앞의 논문, 1999, 2-3쪽.

90) 최상훈 외, 앞의 책, 2007, 182쪽.

91)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 역사; 교수-학습 방향』, 2018.

<표 6> 중등학교 역사 교수—학습 방향

- (1) 중학교 과정은 역사 사실에 대한 세부적이고 기초적인 사실과 개념을 습득하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고등학교에서 이를 바탕으로 고차원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 (2) 역사학습은 과거 사실을 다루는 과정에서 진위 여부 확인, 자료 비판, 상반된 견해의 비교 등 다양한 지적활동을 포함한다. 따라서 중학교 과정에서는 초보적인 수준에서 지식과 기능을 결합한 학습 활동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역사 자료를 다루는 과정에서 역사 개념을 익히고 그 의미를 파악하도록 한다.
- (3) 중학생에게 지나치게 많은 사실과 개념을 암기하도록 하거나 사료를 분석하게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학습 목표에서 제시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 사례를 조사하거나 사례를 통해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 (4) 과거 사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역사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한다.
- (5) 우리나라와 세계의 역사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발전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 (6) 교수—학습 방법은 학습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학습 목표와 수업 방식을 연계하여 구성한다.
- (7) 강의식 수업, 사료 학습, 인물 학습, 모의 법정, 시사 토론, 극화 학습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강의식 수업이나 사료 학습을 통해 지식과 개념 이해를 도모할 수 있고, 역할극과 모의 법정과 같은 방법을 통해 역사적 추체험을 유도할 수 있다. 모의 법정, 시사 토론, 극화 학습과 같이 수업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교수—학습 방법은 교사가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후 시행하도록 한다.
- (8) 상반되는 견해를 분석하고 검토하는 사료 학습, 시사 토론을 통해 분석·비판 능력을 양성할 수 있고, 인물 학습, 극화 학습, 영상 활용 수업으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 (9) 분석·비교·유추와 같은 능력은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수업과정에서 길러지므로, 성취기준에서 제시하는 목표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학생 활동의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한다.

먼저 (1)과 (9)를 보면 중학교 과정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습득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수준을 단계적이며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중학교 단계의 역사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이며 그를 통해 단계적으로 학생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학습방향을 정해야 한다.

또한 (2)와 (3)을 보면 중학교 과정에서는 역사 자료를 직접 다루는 것이 중요하지만 너무 어려운 과제를 부여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사실과 개념을 배우게 하는 것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초보적인 수준에서 교수 학습방향을 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중학교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역사 자료를 다뤄보면서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이나 개념을 습득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너무 어려운 사료나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7)과 (8)을 통해 중학교에서는 다양한 학습방법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고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학습방안의 제시를 끊임없이 제안해왔다. 따라서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2011 개정 교육과정까지 다양한 학습방법을 활용해 중학교에서 역사수업이 이루어지길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이전 교육과정보다 사료학습에 대한 교수 학습 방향이 많이 언급된다. 따라서 중학교 단계에서 초보적인 방법으로 사료학습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현장학습도 다양한 학습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는데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단계에서 역사학습 내용과 연계하여 박물관, 지역의 역사 유적 등 현장체험학습의 기회를 갖도록 권장하고 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빠졌으나 고등학교 학습 방안에는 현장학습에 대한 학습방향이 직접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현장학습은 고등학교에 비해 학습 부담과 입시에 대한 부담이 적은 중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지역사 자료 개발의 필요성과 교육과정의 권장사항을 토대로 『탐라순력도』를 현장자료와 함께 분석하고 이를 활용한 사료 학습과 현장체험학습을 제시하겠다.

2. 지역사 자료로 『탐라순력도』의 가치

『탐라순력도』는 당시 제주목사였던 이형상이 1702년 가을 순력을 마치고 다양한 행사를 그림으로 그려 이듬해에 완성한 제주의 화첩이다. 『탐라순력도』는 전체 41면의 그림과 서문 2면을 포함하여 총 43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력을 통해 본 다양한 제주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⁹²⁾

『탐라순력도』가 제주사에서 가지는 역사적 가치와 특징이 상당하지만 가치가 뛰어나다고 해서 지역사 학습자료로 선정할 수 없다. 따라서 다음 <표 7>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지역사 학습의 사료로 선정하였다.

<표 7> 지역사 학습을 위한 사료선정 기준⁹³⁾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료의 내용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학습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용해야 한다. -학생들의 능력이나 발달 단계에 맞아야 한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료를 택해야 한다. -학습내용과 관련이 깊어야 한다. |
|--|

첫 번째로 사료는 우선 믿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사료의 내용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그대로 담고 있기보다는 편집하고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사료에는 사료를 만든 사람의 개인적 의견이 들어가며 경우에 따라서는 편견이나 의도적으로 왜곡한 역사적 사실이 들어가기도 한다. 이 때문에 역사 연구에서는 사료의 진위나 신뢰성을 가리는 사료 비판 과정을 거친 후에 진행한다. 교재로 사료를 활용할 때도 사료의 이와 같은 성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사료를 선정하고 사료를 비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탐라순력도』는 보물 제652-6호로 선정되어 국립제주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형상이 1702년 가을에 순력한 내용을 이듬해 완성시켰기 때문에 시기와 작자가 분명하다. 『탐라순력도』는 그 당시 다양한 제주의 생활상이 담겨 있으며 행정·교육·진상·관방·자연환경·의례·양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해당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 그 신뢰성이 확인된 사료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제주 해안 방어체계를 학습하는 내용으로서의 적절성이다. 『탐라순

92) 오상학, 『『탐라순력도』의 지도학적 가치와 의의』, 『탐라순력도연구논총』, 제주시탐라순력도연구회, 2000. 25쪽.

93) 최상훈 외, 앞의 책, 2007, 145-146쪽.

『탐라순력도』는 서문을 제외한 41면 중 순력의 주된 목적인 군사 및 군마 점검, 그리고 활쏘기 시험 등 주로 군사와 관련된 장면이 21면으로 가장 많았다.⁹⁴⁾ 나머지 그림에서도 『탐라순력도』에서 해안 방어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총 30면이나 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에 도움이 되며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료라고 생각된다. 다음 <표는> 『탐라순력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관방시설이다.

<표 8> 『탐라순력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안 방어시설

| 구분 | 면수 | 장면 |
|--------|----|--|
| 읍성 | 7 | 제주조점, 정의조점, 정의양로, 대정조점, 대정배전, 대정양로, 건포배은 |
| 진성 | 9 | 화북성조, 조천조점, 모슬점부, 차귀점부, 애월조점, 별방조점, 수산성조, 서귀조점, 명월조점 |
| 봉수와 연대 | 7 | 성산관일, 우도점마, 김녕관굴, 산방배작, 병담병주, 비양방록, 호연금서 |
| 활쏘기 시험 | 7 | 별방시사, 정의강사, 천연사후, 현폭사후, 명월시사, 대정강사, 제주사회 |

세 번째는 학생들의 능력 발달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중요한 사료라도 학생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분석, 해석 등의 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사료는 교재로 적합하지 않다. 『탐라순력도』는 그림으로 되어 있어 방어유적의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그 당시 생활상을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생들이 보기에 무리가 없는 사료이다. 따라서 『탐라순력도』는 그 당시 제주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학습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탐라순력도』를 통해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을 얻는 것과 현장 학습 전 사전학습으로 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장학습을 고려하여 사료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제주목의 해안 방어체계를 알아볼 수 있는 「제주조점」, 「화북성조」, 「조천조점」 등 3가지 그림을 선정하였다. 사전학습을 진행된다면 제주 읍성과 화북진성 그리고 조천진성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진성에 소속되어 있는 봉수와 연대의 모습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장학습과 연계하여 학습하게 된다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94) 한은미,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중·고등학교 역사교육프로그램 개발」, 『역사와 교육』 15, 역사와 교육학회, 2012, 225쪽.

1) 제주 조점

‘燥點’은 군사를 조련하고 병기 등을 점열한다는 뜻을 가진 말이다. 「제주조점」은 탐라순력도의 이형상 목사가 순력할 때 군사를 조련하고 말과 군기를 점검한 상황을 그린 것이다.⁹⁵⁾ 그림을 보면 성 벽에 군사들이 빼곡하게 주둔해 있으며 성안에 주둔한 군사와 성 밖의 군사와 말을 점검한 그림임을 알 수 있다. 제주읍성에 있는 제주읍성을 살펴보면 북문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북문을 만들지 않았던 읍성 특유에 풍수지리 학적인 요소로 생각된다. 그림의 서문은 웅성



그림 1) 제주조점 장면도(제주시청 제공)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활쏘기 시험을 봤던 과녁이 있어 활쏘기가 해안 방어에 중요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제주읍성 내의 풍경을 보면 관덕정, 서원, 삼성묘, 운주당, 객관, 문묘 등이 보인다. 「제주조점」을 통해서 과거 제주읍성의 모습과 관아시설들을 알아볼 수 있으며 燥點의 모습을 잘 알아 볼 수 있다.

95) 오창명, 『탐라순력도 탐색』, 제주발전연구원, 2014, 429쪽.

2) 화북성조

‘城操’는 성을 방어하는 훈련을 뜻하는 것으로, 禾北城操는 이형상 목사 일행이 배석한 가운데 화북진성에 있는 성정군의 守成훈련 장면을 그림으로 남긴 것이다.⁹⁶⁾ 성의 위치는 바다와 마주하고 있는 해안형으로 그림에서도 바다와 붙어 있으며 바로 옆에 포구가 위치하여 화북진성이 포구를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 밖에는 광범위하게 읍외촌이 형성되어 있으며 중간에 별도포리라는 마을 지명의 이름이 있어 마을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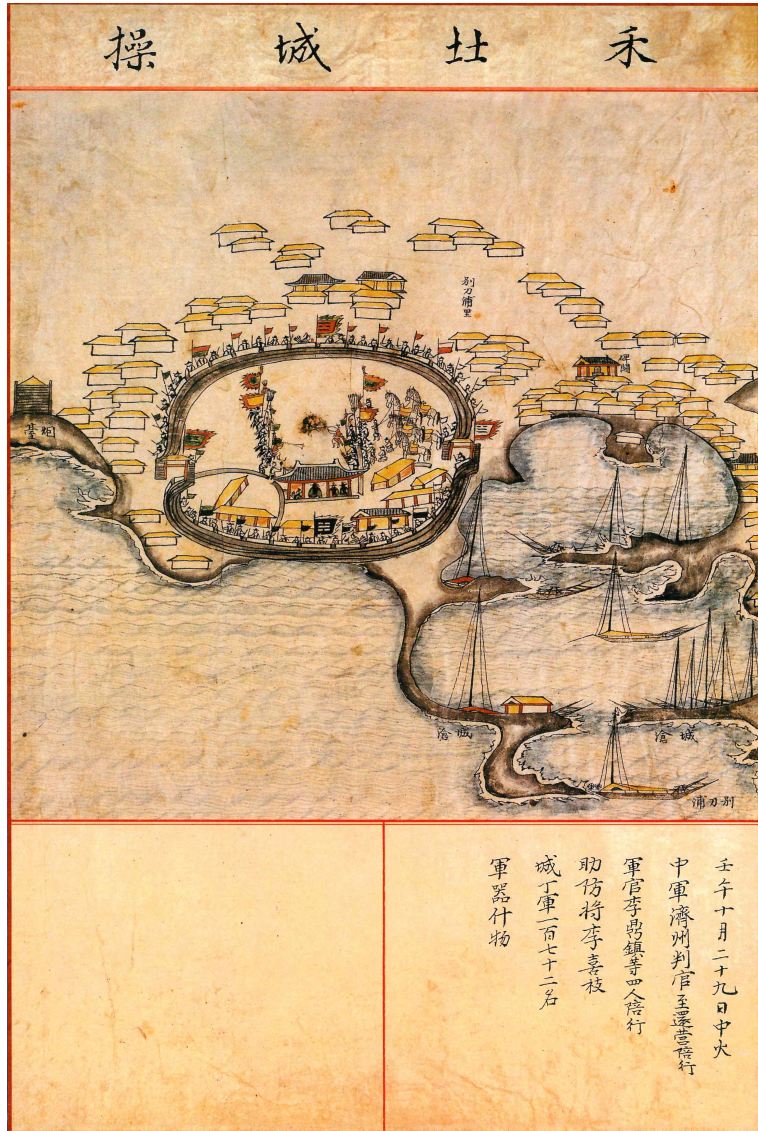


그림 2) 화북성조 장면(제주시청 제공)

마을은 성내와 성외의 거주지가 형성되면서 크게 邑內村과 邑外村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성이 방어와 통치의 기능으로 형성된 것과 함께 당시의 거주지를 선정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⁹⁷⁾

그림의 왼쪽에는 구릉지대에 연대가 그려져 있어 별도연대의 위치를 확인할

96) 오창명, 앞의 책, 2014, 255쪽.

97) 정광중, 『『탐라순력도』를 통해서 본 마을의 구성실태와 분포적 특성』, 『탐라순력도연구논총』, 탐라순력도연구회, 2000, 237쪽.

수 있다. 성 안에는 성벽에 빼곡하게 병사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목사의 관전 하에 군사훈련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화북성조 장면에서는 순력에 대동한 판관·군관·조방장과 성정군 172명이 보고되어 있다.

3) 조천 조점

「조천조점」은 「제주조점」과 마찬가지로 목사가 순력할 때 조천진에서 군사를 조련하고 말과 군기를 점검한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⁹⁸⁾ 그림을 보면 출입문은 남문 하나가 존재하며 남문 옆에戀北亭이 보인다. 성안에는 軍器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의 모습이 보여 적의 침입을 대비하는 진성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그림의 왼쪽을 보면 箭串煙臺라는 연대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는 현재 조천연대라고 불린다. 연대 위쪽으로는 朝天館里라는 마을이 펼쳐져 있으며 활쏘기를 점검



그림 3) 조천조점 장면도(제주시청 제공)

하는 장면도 표현되어 있다. 그림 위쪽을 보면 二所牧場의 둔마屯馬와 日字의 屯馬를 모으고 있는 장면이 있다. 이를 통해 말이 진성방어에서 굉장히 중요했다는

98) 오창명, 앞의 책, 2014, 267쪽.

사실을 알 수 있다.⁹⁹⁾ 「조천조점」을 통해 과거 조천진성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으며 조천진성의 위치, 조천연대의 위치 등을 알아 볼 수 있다. 또한 조천진성 주변의 마을의 형성과 둔마를 모으는 모습을 통해 과거 진성의 조점 양상을 잘 알아볼 수 있다. 조천조점 장면에서는 조방장 · 성정군 · 목자 · 보인 등과 말 505필이 점검되고 있다.

3. 탐라순력도 의 해안 방어시설과 현장유적

현장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학습 장소를 선정하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제주의 해안 방어유적을 알아보기 위해 제주읍성과 진성 · 연대 · 환해장성을 포함하는 화북동 방어유적, 조천진성을 현장학습의 장소로 선정하였다.

1) 제주읍성

제주읍성은 현재 남쪽 오현단이 위치한 곳에 일부 복원되어 있으며 제주도 제주시 오현길 61에 위치하고 있다. 길이는 약 85m정도, 높이는 약 3.7m에서 4m 정도 남아 있다. 제주 성지에는 오현단, 제이각, 성벽 등이 남아 있다. 제주 읍성의 행정관아시설인 관덕정과 제주 목관아지도 남아 있으나 전체적으로 성의 예전 모습을 알아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제주읍성이 제주도의 중심이며 제주목사가 해안 방어체계를 지휘했던 곳이기 때문에 교육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 제주읍성도(제주고고학연구소 제공)

99) 전영준, 「고려~조선시기 제주 동부지역의 교통로와 普門寺址」, 『역사민속학』 58, 한국역사민속학회, 2020.

(1) 제주성지와 제이각

제주성지와 제이각은 현재 제주도 제주시 오현길 61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유적은 제주 읍성의 군사적인 기능을 알아볼 수 있는 유적이다. 성벽은 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성의 경계와 규모를 결정지으며 적이 침입을 방지하는 시설물이다. 제주읍성에는 치성의 모습도 보이는데 치성은 성벽에 덧붙여서 쌓은 구조물로 주로 장방형으로 되어 있다. 치성은 전투 시 성 밑에 접근하는 적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시설이다. 또한 성벽에 접근한 적을 정면과 측면에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성벽 방어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 제주읍성 남문 옆 치성



그림 6) 남문 제이각(制夷閣)

현재 제주읍성의 성벽은 길이가 약 85m 남아 있으며 높이가 약 3.7m에서 4.3m까지 형성되어 있다. 성벽 위에는 女牆이라는 낮게 쌓은 담도 존재하는데 3중 구조로 되어있으나 방어적인 기능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제주성지에는 제이각이라는 방어시설도 복원되어 있는데, 제이각은 초소 겸 장군의 지휘소 역할을 하였다. 성벽과 치성 그리고 제이각을 통해서 군사적 기능을 가진 방어시설로서 제주읍성의 군사적인 기능을 볼 수 있다.

(2) 제주목 관아

제주목 관아는 과거 제주목의 통치의 중심지였던 곳으로 오래전부터 주요 관아가 설치되었다. 현재 관덕정과 함께 복원되어 있으며 다양한 관아건물과 역사관등이 복원되어있다.

제주목 관아에서 과거 행정업무의 기능을 알아볼 수 있는 건물가운데 대표적

인 건물은 연희각과 망경루이다. 연희각은 흔히 말하는 東軒으로 동헌은 수령이 상주하여 업무를 보는 행정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망경루는 목관아 내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임금이 있는 서울을 바라보며 그 은덕에 감사드리며 예를 올리던 곳이다. 또한 망경루는 높이가 높아 제주 앞바다로 침범하는 왜구를 감시하는 역할도 맡고 있었다. 망경루는 제주목 관아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며 행정적 기능과 군사적 기능을 모두 알아볼 수 있는 건물이다.



그림 7) 연희각 정면



그림 8) 망경루 근경

그 밖의 건물로는 목사가 휴식을 취하던 굴림당, 군관들이 근무하던 관청인 영주협당, 공물을 봉진하던 장소인 우련당 등 많은 관아건물들이 복원되어있다. 또한 제주목의 역사관과 탐라순력도 체험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목의 과거 모습과 행정적 역할을 하였던 관아건물들의 모습과 특징을 잘 알아볼 수 있는 공간이며 학생들의 교육활동에도 적합한 공간이다.

2) 화북동 해안 방어유적

화북동 해안 방어유적은 화북진성, 별도연대, 화북 환해장성, 곤을동 환해장성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문헌자료와 『탐라순력도』를 통해 확인했듯이 화북에는 포구가 있었고 제주목으로 들어오는 사람들과 나가는 사람이 자주 왕래하던 중요 포구였다. 따라서 이 지역을 방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였는데 현재도 포구가 존재해 옛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에는 진성과 연대, 환해장성이 서로 모여 있으며 하나의 시설처럼 상호 보완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제주의 해안 방어유적의 원리를 알아보기 적합한 장소로 판단되어 학습장소로 선정하게 되었다.

현재 진성으로 화북진성이 존재하고 있다. 화북진성은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도 성벽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진성의 군사적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연대는 별도연대가 존재하는데 별도연대의 경우 해안가 구릉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해안을 관찰하는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연대는 해안가에 위치하기 때문에 적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어 군사적인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었다. 제주도 내 연대에는 복원된 형태가 봉수대만 있는 것이 대부분 별도연대는 땀감을 보관하던 장소도 함께 복원되어 다른 연대와는 구별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지역에 있는 환해장성으로는 화북 환해장성과 곤을동 환해장성이 있다. 화북 환해장성의 경우 복원이 되어 있다. 화북 환해장성은 그 규모가 상당하며 그 위치는 별도 연대와 화북진성 앞에 있어 이들 방어시설을 1차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곤을동 환해장성의 경우 복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환해장성의 원래의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화북 환해장성과 곤을동 환해장성을 비교하여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학습의 장소로서 중요한 곳이다. 다음은 화북동 해안 방어유적의 지도 및 교육자원이다.



그림 9) 화북동 해안 방어유적 분포도(국립지리정보원 제공)

(1) 화북진성

화북진성은 화북동에 있는 진성으로 화북포구를 보호하고 제주목으로 들어가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림 10) 화북진성 북쪽 성벽



그림 10) 화북진성 서쪽 성벽

현재 화북진성은 화북청소년 문화센터의 벽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북쪽 성벽이 약 100m 정도 남아 있으며 높이는 약 4m 정도 남아 있다. 화북진성의 경우 훼손이 많이 되어 있다. 다만 원래 위치에 자리 잡고 있으며 진성을 보호하고 있는 다른 해안 방어유적과 연계가 좋기 때문에 해안 방어체계를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2) 별도연대

별도연대는 화북진에 소속된 연대로 동쪽으로는 원당봉수와 서쪽으로는 사라봉수와 응하였다. 『탐라순력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별도연대는 화북진성 옆 높은 언덕에 자리잡고 있으며 주로 해안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별도연대는 현재 화북동 1537번지에 위치하며 주위보다 지형이 높은 언덕위에 복원되어 있다. 별도연대에서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사라봉수와 원당봉수가 시야에 잘 들어오며 돌출된 해안지대에 있기 때문에 바다를 관찰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드러난다.



그림 12) 별도연대



그림 13) 별도연대의 구조물

별도연대의 특징은 다른 연대에는 없는 추가적인 공간이 있다. 연대는 불을 피워야 했기 때문에 뿔감이 필요하였는데 이 공간은 바로 뿔감을 보관하던 자리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다른 연대에는 없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며 다양한 시각에서 연대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3) 화북 환해장성

화북환해장성은 화북일동 1537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길이는 약 620m, 높이는 약 3.5m에서 최대 5m가 넘는 성벽까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다.



그림 14) 화북 환해장성의 외벽



그림 15) 화북 환해장성의 내벽

환해장성은 과거 제주의 해안선에 상당한 부분 설치되었으나 현재는 환해장성이 많이 훼손되어 그 형태를 온전히 알아볼 수 있는 환해장성이 드물다. 또한 복원되지 않은 환해장성은 일반 돌담과 구분하기 어렵다. 화북 환해장성은 복원되

어 있는 환해장성으로 예전 제주인들이 쌓았던 환해장성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해안가에 붙여 복원하였기 때문에 환해장성의 역할을 제대로 보여준다. 또한 화북 환해장성은 약 620m길이와 높이가 약 4m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로 복원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환해장성이 가지는 군사적 기능과 장대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4) 곤을동 환해장성

곤을동 환해장성은 화북 환해장성과 인접해 있다. 곤을동 환해장성은 별도봉부터 시작하여 화북포구에 이르기 전까지 해안선을 따라 설치되었다. 현재 곤을동 환해장성은 복원이 되지 않아 곳곳이 무너져 있으며 그로 인해 큰 규모를 유지하지 못한다.



그림 16) 곤을동 환해장성



그림 17) 주택의 담으로 이용되고 있는 환해장성

곤을동 환해장성은 환해장성 원래의 완전한 모습을 확인할 수 없으나 옛 제주인들이 쌓았던 장성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독특한 제주의 축성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현재 환해장성은 해안마을의 집담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곤을동 환해장성이 제주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현재 어떻게 이용되는지 생활 속에서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높다.

3) 조천진성

조천진성의 축조된 시기는 자세하지 않으나 조선 초기부터 조천방호소와 조천

포수전소가 있던 방어의 요충지였다.¹⁰⁰⁾

조천진성은 현재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90 번지에 있으며 북측 해안가와 접해있는 해안형 진성이다. 진성의 둘레는 약 128m 정도 남아 있으며 높이는 약 2.2m 에서 4m까지 다양하다.



그림 18) 조천진성



그림 19) 조천연대

『탐라순력도』의 「조천조점」에는 진성 가운데 연북정·군기고 등 5개 동의 건물이 있었으나 지금은 연북정만 남아있으며 다른 시설들이 모두 없어져 옛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¹⁰¹⁾ 그러나 『탐라순력도』와 비교하여 가장 원형에 가깝게 남아 있으며 성의 보존상태와 위치를 고려하였을 때 진성의 군사적 기능을 알아보기 유용하다.

조천연대는 조천진에 소속된 연대로 『탐라순력도』에서는 관곶연대라고 불렀다. 조천연대의 위치는 해안가와 접해있는 높은 언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안 관측에 유리한 지형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탐라순력도』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조천진성과 함께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탐라순력도』와 비교하여 학습하기 좋은 장소이다.

100) 전영준, 「조선시대 해안 방어유적과 교통로」, 『2020학술답사 자료집』, 제주문화원, 2020, 15쪽.

101) 전영준, 위의 글, 2020, 17쪽.

IV. 지역사 교육을 위한 현장학습 프로그램 개발

1.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사전 사료학습

역사학습의 내용으로 제주 해안 방어체계를 학습하기로 하였으며 교재로 사료와 유적을 선정해 사료학습과 현장체험방안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여기에서 제안할 지역사 학습 프로그램은 현장체험학습이 중심이며 현장체험학습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학습방법인 사전학습-현장학습-사후학습의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먼저 사전학습에서는 학습내용인 제주 해안 방어체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탐라순력도』를 통한 사료학습을 통해 제주 해안 방어체계를 이해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또한 『탐라순력도』에 나온 해안 방어시설과 현장답사지로 선정된 해안 방어유적을 일치시켰기 때문에 현장답사하게 될 해안 방어유적을 사료로 통해 미리보고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현장 활동으로 제주읍성과 화북동에 있는 해안 방어유적, 그리고 조천진성에 직접 가서 활동을 하게 된다. 현장에 가서 조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제주의 해안 방어유적을 학습하게 되며 교실에 돌아와 사후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현장학습 지도계획은 제주 시내권 학교를 예로 가정하여 수립하였다.

<표 9> 현장학습 지도계획

| | | | |
|-------|---------------------------------------|-------|---|
| 학습 장소 | 1. 제주읍성 2. 화북동 해안 방어 유적 3. 조천진성 | 학습형태 | 개인별 탐구학습, 모둠별 협동학습, |
| 관련 교과 | 역사 | 관련 단원 | 중학교 역사2 IV. 조선의 성립과 발전 2. 통치체제 정비와 대외관계 |
| 소요 시간 | 4시간 | 교통편 | 전세버스 |

| 준비물 | 필기도구, 현장학습 활동지 | |
|-------|---|--|
| 주요 코스 | 학교→ 조천진성→ 화북동 해안 방어유적 → 제주읍성 →학교 | |
| 학습 목표 | 1. 현장 답사를 통해 제주 해안 방어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 2. 현장 조사를 통해 유적을 조사하는 능력을 기른다. 3. 현장 유적을 직접 보고 제주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다. | |
| 학습 단계 | 시간 | 학습활동 내용 |
| 사전활동 | 2~7일전 | 단원 도입 및 계획, 학습 방법 문제 파악 『탐라순력도』를 통한 제주 해안 방어체계 학습 |
| 현장 활동 | 08:40~09:10 | ▶ 이동(학교→ 조천진성) ▶ 버스 안에서 현장학습 주의사항 전달 및 안전지도 |
| | 09:10~10:00 | ▶ 조천진성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용 |
| | 10:00~10:10 | ▶ 이동(조천진성→ 화북동 해안 방어유적) |
| | 10:10~11:10 | ▶ 화북동 해안 방어유적 프로그램 |
| | 11:10~11:30 | ▶ 이동(화북동 해안 방어유적→ 제주읍성) |
| | 11:30~12:40 | ▶ 제주읍성 프로그램 |
| 사후활동 | 12:40~13:00 | ▶ 이동(제주읍성→ 학교) |
| | 현장학습 이후 교실 활동 | ▶ 모둠별 현장학습 보고서 작성하기 ▶ 다양한 방법으로 보고서를 발표하고 소개하기 ▶ 현장학습을 마친 소감과 느낌 나누기 및 평가 |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지역사 학습 프로그램은 교육내용인 제주 해안 방어체계에 대한 이해와 『탐라순력도』를 학생들이 직접 다뤄보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탐라순력도』를 통해 제주의 해안 방어유적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읍성과 진성의 다양한 부속시설과 과거 제주인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사료학습은 현장학습을 위한 사전활동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제주 해안 방어체계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읍성과 봉수는 교과서에서 학습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부족하고 제주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개념학습이 필요하다. 또한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은 제주의 진성과 연대, 환해장성 등을 학습하고 전체적인 제주의 관방체계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주 해안방어체계에 대한 개념을 학습한 후 현장답사지로 선정된 장소를 살펴볼 수 있는 「조천조점」, 「화북성조」, 「제주조점」을 학습 자료로 선정하여 사료를 통하여 먼저 제주 해안 방어시설을 알아보고 이어 현장답사를 통해 문헌과 유적을 비교하는 학습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천조점을 먼저 체험하는 것은 동선의 효율성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제주조점으로 귀결되는 것 또한 제주읍성이 지닌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지역사 학습방안을 통

해 역사가가 이용하는 사료인 문헌자료와 현장자료를 모두 다뤄보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였다.

<표 10> 사료학습의 학습목표

【지식 · 이해】

- ① 『탐라순력도』가 무엇이고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있다.
- ② 『탐라순력도』를 통해 제주의 해안 방어시설의 모습과 특징을 알 수 있다.
- ③ 『탐라순력도』안에서 제주인들의 삶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능】

- ① 사료학습을 통해 사료를 직접 접해보고 분석하는 능력을 기른다.
- ② 『탐라순력도』를 통해 해안 방어시설의 모습과 특징을 조사할 수 있다.

【가치 · 태도】

- ① 『탐라순력도』를 통해 과거 제주인들의 다양한 삶을 느낄 수 있다.
- ② 사료학습을 통해 제주의 해안 방어유적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다.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사료학습에서 기본적인 수업방법은 강의식 수업을 통해 제주 해안 방어체계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다. 짧은 시간에 제주 해안 방어체계의 개념을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학습자료를 구성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개념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이후 『탐라순력도』를 활용해 『탐라순력도』에 나오는 그림을 분석하고 교사의 물음에 답하는 문답식 방법을 사용하여 수업을 구성하였다.

문답식 수업은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며 진행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교사의 발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교사는 수업을 구성할 때 효과적인 발문전략을 계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문답식 수업에서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질문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11> 문답식 수업에서 교사가 사용하는 질문의 종류¹⁰²⁾

| |
|---|
| <p>인지 기억 질문: 학생들이 사실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지 확인하는 질문 (응답자의 지식이나 이해도를 알아보는 질문)</p> <p>수렴적 질문: 사실과 아이디어의 관계를 수립하고 여러 가지 가능한 응답 중 가장 올바르거나 적절한 답을 추출하는 질문 - 비교, 대조, 관련짓기 연상 등</p> |
|---|

확산적 질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사고하도록 하는 질문이다.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하며 독창적 창조적 반응을 요구하는 질문

평가적 질문: 판단, 가치, 선택과 관련된 질문으로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질문이다.

문답식 수업에서는 4가지 형태의 질문을 모두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인지 기억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제주 해안 방어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배운 내용의 『탐라순력도』를 분석하고 간단한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다. 평가적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판단을 알아볼 수 있으며 학생들의 바람직한 태도를 알아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역사적 사고력과 관련된 질문은 수렴적 질문과 확산적 질문이기 때문에¹⁰³⁾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 신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적 질문을 확산적 질문으로, 인지 기억 질문을 수렴적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면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 신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따라서 『탐라순력도』를 제시하고 그에 맞는 발문을 통해 학생들의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수업을 계획하였다.

<표 12> 사료학습 교수-학습 과정안

| 대단원명 | IV.조선의 성립과 발전 | | 차시 | 1/1 | |
|------|---|---------|--|--------|--|
| 중단원명 | 1. 통치체제 정비와 대외관계 | | 수업형태 | 문답식 수업 | |
| 학습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탐라순력도』를 통해 제주의 해안 방어시설을 알아볼 수 있다. 제주해안 방어시설의 상호 유기적 관련성에 대해 이해한다. | | | | |
| 수업자료 | 교과서, PPT 자료, 시청각 자료(『탐라순력도』) | | 소요시간 | 45분 | |
| 학습단계 | | 주요 학습내용 | 교수-학습 활동 | 시간 | 자료 및 유의점 |
| 도입 | 학습 동기 유발 | 『탐라순력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역할 ▷ 학생의 역할 | 2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라순력도』가 제주 해안 방어체계를 학습하기 좋은 자 |

102) 전영준, 『역사교과교육론』, 제주대학교, 2018, 129-130쪽.

103) 전영준, 위의 책, 2018, 130쪽.

| | | | | | |
|--------|---------------|----------------------------|---|----|---|
| | | 「제주조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미있는 그림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한다. ▶ 「제주조점」을 보여주고 과거의 제주 읍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제주 읍성을 학습하게 한다. | 5분 | <p>료임을 강조한다.</p> <p>✓ 학생들이 오늘 배울 내용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p> |
| | 학습목표 제시 | | ▶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따라 읽도록 지도한다. | 1분 | |
| 전 개 | 주요 학습 내용이 해하기 | 제주해안 방어체계에 서 읍성과 진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성의 행정적 기능과 군사적 기능을 설명한다. ▶ 진성의 군사적 기능을 설명한다. ▷ 교과서에서 배운 읍성의 내용과 제주 읍성에 대해 비교한다. ▷ 진성의 역할을 이해한다. | 5분 | <p>✓ 수업 내용을 정리한 PPT를 판서 대용으로 활용 한다.</p> |
| | | 봉수 · 연대와 해안 방어체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수와 연대의 역할을 설명하고 제주의 해안 방어체계가 서로 관련이 있음을 설명한다. ▷ 교과서에서 배웠던 봉수와 제주 해안 방어체계에 대해 비교한다. ▶ 제주 해안 방어체계의 상호 유기적 관련성을 이해한다. | 5분 | |
| | 개인별 탐구활동하기 | 「화북성조」에 관한 활동지 풀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북성조」 활동지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학습활동을 하게 한다. ▷ 「화북성조」를 보고 활동지 안에 질문을 자유롭게 작성한다. | 7분 | <p>✓ 수업들은 내용을 토대로 학습지를 작성하도록 유도.</p> <p>✓ 학생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발표하도록 유도하고, 산만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p> |
| | 개인별 발표 및 논의하기 | 「화북성조」에 관한 활동지 해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북성조」에 대한 질문들을 자유롭게 발표시키고 교사가 필요한 부분을 설명한다. ▶ 활동지에 내용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교사의 설명을 통해 활동지를 보충한다. | 5분 | |
| | 개인별 탐구활동하기 | 「조천조점」에 관한 활동지 풀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천조점」 활동지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학습활동을 하게 한다. ▷ 「조천조점」을 보고 활동지 안에 질문을 자유롭게 작성한다. | 7분 | |
| | 개인별 발표 및 논의하기 | 「조천조점」에 관한 활동지 해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천조점」에 대한 질문들을 자유롭게 발표시키고 교사가 필요한 부분을 설명한다. ▶ 활동지에 내용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교사의 설명을 통해 활동지를 보충 | 5분 | |

| | | | | |
|--------|------|--------------------------------|--------|--|
| 정 리 | 형성평가 | ▶ 형성평가를 풀며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한다. | 2 분 | ✓ 오늘 배운 내용과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의 연계성을 잘 이해하도록 한다. |
| | 차시예고 | ▶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안내한다. | 1분 | |

【지도상의 유의점】

- 『탐라순력도』의 행사장면을 보게 하고 다양한 생각을 발표하게 한다.
- 사료학습 전 해안 방어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학습을 실시한다.
- 『탐라순력도』에 기록되어 있는 한문자료나 낯선 표현들은 학생들이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들이 보기 쉬운 자료로 번역하고 어려운 단어들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준다.
- 『탐라순력도』는 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발문을 통해 학생들이 주목해야할 곳을 제시한다.

『탐라순력도』를 통한 사료학습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사전학습의 자료로 제시했을 때 현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탐라순력도』에 그려진 대상 유물을 직접 비교할 수 있다. 또한 본시학습에서 분산적 접근방법으로 읍성과 봉수의 내용을 학습할 때 『탐라순력도』 자료를 지역사 자료로 제시하고 앞서 제작한 활동지를 풀어보는 방향으로 수업을 구성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단독으로 사료학습의 진행도 가능하다. 각각의 장면에 대한 기록(畵記)을 제외하더라도 『탐라순력도』에는 해안 방어유적을 살펴볼 수 있는 그림이 많아, 현재의 시점에서 비교문화사 학습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학습을 위한 사전학습으로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학습은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역사적 사고의 바탕은 역사학의 연구방법과 절차이며 역사가의 연구과정이 역사적 사고의 기본적인 모델이다.¹⁰⁴⁾ 『탐라순력도』와 현장유적을 함께 활용한 하나의 학습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역사가가 하는 활동과 동일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역사적 사고력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04) 전영준, 「역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중등 역사수업의 문화재 교육」, 『역사와 실학』 66, 역사실학회, 2018, 434쪽.

다음에 제시하는 사전학습의 <학생활동지>는 화북성조와 조천조점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할 때 유용한 접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장학습 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당시의 상황과 목사의 순력 목적 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제시한 「조천조점」의 장면을 보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1. 왼쪽 ○안에 있는 구조물은 무엇이며 조천진성과의 관계를 적어보세요

2. 「화북성조」와 비교하여 다른 점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3. 목장에서 많은 수의 말을 길렀던 이유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해 봅시다.

4. 조천진성의 위치가 적절한가요?

5. 다음의 「조천조점」 해설을 보고 「조천조점」은 무엇을 그렸는지를 써보세요.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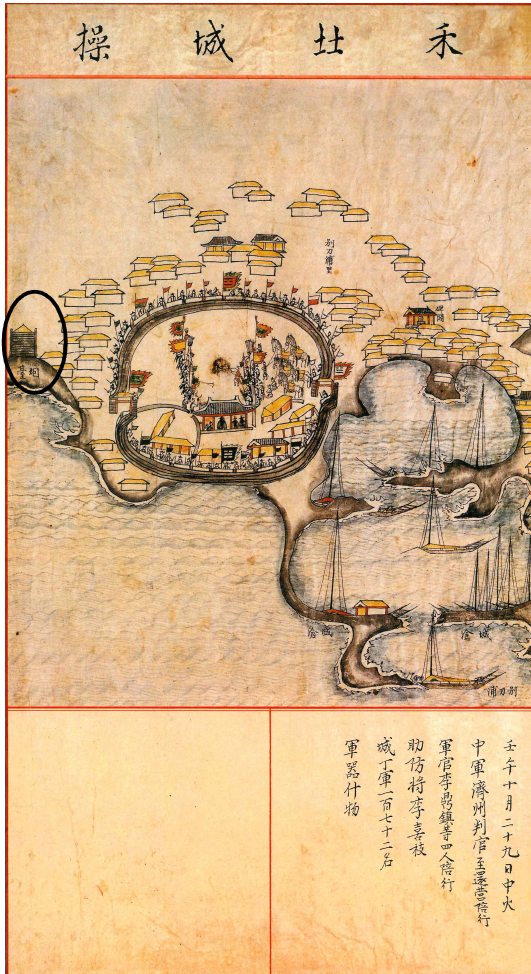
임오년 10월29일에 임시로 목을 곳에 도착했다. 조방장은 김삼중이었다. 성정군은 423명이었다. 군기와 집물을 점검했다. 목자와 보인은 아울러서 85명이었다. 말은 505필이었다.

*둔마(屯馬): 군대에서 키우는 말

*목자(牧子): 말과 소를 기르던 사람

*보인(保人): 조선시대 군사비 충당을 위하여 정군에게 딸린 경제적 보조자

제시한 「화북성조」라는 장면을 보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1. 왼쪽 ○안에 있는 구조물은 무엇이며 화북진성과의 관계를 적어보세요.

2. 조천진성과의 차이를 적어보세요.

3. 화북진성 주변에 마을이 형성된 이유를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해 보세요.

4. 화북진성의 위치가 적절한가요?

5. 제시된 장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해설】

임오년 10월 29일 길을 가다가 점심을 먹었다. 중군인 제주판관이 제주영으로 돌아올 때까지(목사를 모시고)따라 갔다. 군관 이정진 등 4인이 목사를 모시고 따라갔다. 조방장은 이희지였다. 성정군은 172명이었다. 군기와 집물을 정비하였다.

2. 현장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제시

1) 조천진성 현장학습 프로그램

조천진성 프로그램은 크게 2가지로 구성되며 조천진성과 조천연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된다. 조천진성 프로그램에서 주로 알아봐야 하는 것은 『탐라순력도』와 비교하여 진성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다. 현재의 조천진성과 과거 『탐라순력도』에서 조천진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朝天館은 제주에서 육지로 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이곳에서 배를 타려고 순풍을 기다리기 위해 거치는 곳이었다. 또한 전라도에서 제주 3고을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거쳐 가던 곳이기도 하였다. 조천진성은 조천의 포구를 보호하고 외적의 침입을 대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곳으로 군사적 요충지였다. 따라서 조천진성과 조천연대의 군사적 기능과 상호 관련성, 위치 등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였다.

<표 13> 조천진성 프로그램의 학습 목표

| |
|---|
| <p>【지식 · 이해】</p> <p>① 과거 조천을 방어하였던 조천진성의 군사적 기능을 알 수 있다.</p> <p>② 조천연대의 모습과 군사적 기능을 알 수 있다.</p> <p>③ 조천진성과 조천연대의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다.</p> <p>【기능】</p> <p>① 현장자료를 직접 보고 분석할 수 있다.</p> <p>② 『탐라순력도』의 「조천조점」에서 조천진성의 모습과 현재의 조천진성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다.</p> <p>③ 과거 조천진성의 모습을 추론해 볼 수 있다.</p> <p>【가치 · 태도】</p> <p>① 제주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다.</p> <p>② 모듬활동을 통해 협력하는 태도를 기른다.</p> |
|---|

조천진성의 현장학습 프로그램은 사전학습을 통해 제주해안 방어체계를 이해하고 『탐라순력도』를 통해 해안 방어시설을 확인한 후 이루어진다. 조천진성과 조천연대는 「조천조점」을 통해 그림으로 확인했던 것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유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천조점」을 제시하고 유적과 비교하는 학습활동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천연대를 통해서 통신수단으로서 연대의 기능과 역할을 알 수 있게 학습활동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인 학습방법은 주어진 과제를 분담하여 활동을 하는 과제분담 협동학습 모형¹⁰⁵⁾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은 모둠을 구성하고 모둠원간의 협의를 거쳐 주어진 과제를 분담하여 학습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모둠활동 이후 자유로운 발표를 통해 다른 학생들의 설명과 교사의 보충 설명을 듣고 활동지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표 14> 조천진성 현장학습 교수—학습 과정안

| | | | | |
|------|---|--|------|-------------|
| 대단원명 | IV.조선의 성립과 발전 | | 차시 | 1/3 |
| 중단원명 | 2. 통치체제 정비와 대외관계 | | 수업형태 | 모둠별 조사학습 |
| 학습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천진성을 통해 진성의 기능을 알아 볼 수 있다. • 조천진성에 있는 제주인의 다양한 생활모습과 유적을 통해 제주인의 삶을 이해한다. | | | |
| 수업자료 | 현장자료, 현장 활동지 | | 소요시간 | 45분 |

| 학습단계 | | 주요 학습내용 | 교수-학습 활동 | 시 간 | 자료 및 유의점 |
|--------|-------------------|-------------------------|---|---------|--|
| 도 입 | 학습동 기 유발 | 조천진성과 연복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역할 ▷ 학생의 역할 | 5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오늘 수행하게 될 학습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 학생들이 오늘 배울 내용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천진성과 연복정 주변을 자유롭게 둘러보게 한다. ▶ 본 수업의 주제는 조천진성의 다양한 시설을 조사하는 수업임을 알려 준다. ▷ 유적을 자유롭게 둘러보면서 학습동기를 유발한다. | | |
| 전 개 | 모둠별 탐구활 동하기 | 조천진성의 옛 모습과 현재 모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로 2개조로 나누어 역할을 분담한다. ▷ 조천진성에 관한 활동지를 수행한다. | 10 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로 2가지의 과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모둠별 구성원이 주제를 나누어 가 |

105) 과제분담 협동학습이란 하나의 대주제를 소주제로 나눈 후 소주제를 개별학생이 맡아 학습한 후 다른 동료를 가르치는 구조를 말한다.

| | | | | | |
|----|-----------------|------|--|-----|--|
| | | | | | <p>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p> <p>✓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조천진성을 둘러보게 한다.</p> |
| | 모듬별 조사 완성하기 | 조천진성 | <p>▷ 각 모듬별로 구성원들이 모여 자신이 해결한 과제를 각자 설명하고 공유한다.</p> <p>▷ 각 조원들의 설명을 토대로 학습 활동지를 작성한다.</p> | 10분 | <p>✓ 활동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한다.</p> <p>✓ 학생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발표하도록 유도한다.</p> |
| | 교사와 학생이 함께 정리하기 | 조천진성 | <p>▶ 교사와 학생이 조천진성의 활동지를 다함께 가면서 발표하고 교사는 보충설명을 한다.</p> <p>▷ 각 모듬의 구성원들은 각자 맡은 활동장소에 도착했을 때 자유롭게 발표하고 부족한 내용을 보충한다.</p> | 5분 | |
| | 모듬별 탐구활동 | 조천연대 | <p>▷ 조천연대로 이동해 조천연대에 대한 활동을 한다.</p> | 5분 | |
| | 교사와 학생이 함께 정리하기 | 조천연대 | <p>▶ 교사와 학생이 조천연대의 활동지를 다함께 보면서 발표하고 교사는 보충설명을 한다.</p> | 5분 | |
| 정리 | 느낀점 발표하기 | | <p>▶ 조천 해안 방어유적을 둘러보면서 느낀 점을 발표하게 한다.</p> <p>▶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안내한다.</p> | 5분 | <p>✓ 오늘 배운 내용과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의 연계성을 잘 이해하도록 한다.</p> |

【지도상의 유의점】

- 조천진성의 시설물을 파괴하지 않도록 안전상의 주의를 준다.
- 모듬별 탐구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교사는 방향을 제시한다.
- 협동학습은 과거 소집단 학습과 다르게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 협동학습은 개별 책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성원이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조천진성 현장학습 프로그램에서는 조천진성과 조천연대의 군사적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과제중심 협동학습을 통해 활동을 하게 된다. 가장 먼저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조천진성을 둘러보면서 학습에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생들에 조천진성과 조천연대를 자유롭게 둘러보고 부여받은 2가지의 과제를 모둠별로 잘 분배하는지에 대해 교사는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주어진 과제가 끝나면 학생들에게 자신이 수행한 과제를 모둠별로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이 조사한 내용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는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면서 마지막에 학생들이 학습활동 과정에서 놓쳤던 부분이나 꼭 전달해야하는 부분을 보충 설명하면서 학습프로그램을 마무리 하여야 한다.

조천진성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조천조점」에서 본 방어시설과 현재 남아 있는 해안 방어유적의 비교를 통해 역사적 사고력이 신장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역사적 사고력은 크게 역사적 탐구기능과 역사적 상상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역사적 탐구기능 중 하나는 사료를 다루는 능력이다.¹⁰⁶⁾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조천조점」에서 본 조천진성과 조천연대가 그림에서 표현하고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천조점」에서의 조천진성의 모습과 현재 조천진성의 모습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흥미를 느끼게 될 것으로 생각되며 『탐라순력도』의 내용이 사실인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름대로의 사료비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 사고력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조천조점」과 현장유적의 비교를 통해 과거 조천진성의 모습을 현재의 조천진성과 대입해보고 과거 조천진성의 역할을 상상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 사고력 신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천진성 현장학습 프로그램은 모둠별 협동학습을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둠원들 간의 협력하는 태도를 기르게 될 것이다. 또한 모둠원들과 함께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통해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을 기대한다.

106) 양호환 외, 『역사교육의 이론』, 책과함께, 2009, 364쪽.

<과제 1> 다음 『탐라순력도』의 「조천조점」과 현재 조천진성의 모습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적어봅시다.



<과제 2> 연북정을 찾아가 설명을 읽고 연북정의 기능을 군사적 관점에서 적어봅시다.

<과제 3> 다음 사진의 명칭을 쓰고 진성 내에서의 기능은 무엇인지 쓰세요.



2) 화북동 해안 방어유적 현장학습 프로그램

화북동 해안 방어유적 현장학습 프로그램은 읍성을 제외한 진성·연대 그리고 환해장성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습을 구현하였다. 따라서 각 유적의 특징과 역할을 알아보고 서로 어떻게 보완하는지를 학습하도록 하기 위해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였다.

<표 15> 화북동 해안 방어유적 프로그램 목표

| |
|---|
| <p>【지식 · 이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화북동 해안 방어유적을 통해 제주 해안 방어시설의 특징을 알 수 있다.② 제주 해안 방어시설의 상호 유기적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다.③ 제주 해안 방어유적이 현재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p>【기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현장자료를 직접 보고 분석할 수 있다.② 화북동에 있는 여러 유적들을 조사할 수 있다. <p>【가치 · 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제주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다.② 해안 방어유적을 통해 제주를 방어하려 했던 제주인의 노력과 지혜를 본받을 수 있다. |
|---|

화북동 해안방어유적은 한곳에 모여 있으나 유적간의 거리가 멀어 함께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습 프로그램의 기본방향은 조천진성 프로그램과 다르게 개인별 조사활동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모둠별에서 개인별로 바뀌는 것일 뿐 학생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전의 활동 프로그램과 일관성 있게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학생들과 교사는 함께 이동하게 되며 장소마다 도착해 학생들은 유적을 자유롭게 둘러보고 생각나는 점을 발표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활동지를 통한 탐구학습을 진행한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학생들은 유적을 보고 발표를 통해 말하며, 교사의 설명을 듣고 활동지를 통해 글을 쓰는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표 16> 화북동 해안 방어유적 현장학습 교수—학습 과정안

| | | | |
|------|---|------|-------------|
| 대단원명 | IV.조선의 성립과 발전 | 차시 | 2/3 |
| 중단원명 | 3. 통치체제 정비와 대외관계 | 수업형태 | 개인별 조사학습 |
| 학습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해안 방어유적의 기능을 알 수 있다. • 제주 해안 방어시설의 상호 유기적 관련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 |
| 수업자료 | 현장자료, 현장 활동지 | 소요시간 | 45분 |

| 학습단계 | | 주요 학습내용 | 교수-학습 활동 | 시간 | 자료 및 유의점 |
|------|-----------|-------------------|---|-----|---|
| 도입 | 학습동기 유발 | 화북동 환해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역할 ▷ 학생의 역할 | 5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북 환해장성은 바다와 접해있으므로 안전상에 유의한다. ✓ 학생들이 오늘 배울 내용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해장성에 도착해 환해장성이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발표하도록 한다. ▶ 본 수업의 주제는 화북동 해안 방어유적이 어떤 역할을 하고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수업임을 알려준다. ▷ 학생들은 환해장성을 자유롭게 둘러본다. | | |
| 전개 | 별도연대 | 별도연대의 기능과 위치적 중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연대를 자유롭게 둘러보게 한 후 발표를 들어보고 부족한 내용을 보충한다. ▷ 학생들은 별도연대를 자유롭게 둘러본다. ▶ 별도연대에는 연대를 설명하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과제를 직접 수행하게 한다. | 10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조사학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해안 방어유적을 둘러보게 한다. |
| | 화북진성과 용천수 | 화북진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북진성에 도착한 후 해당유적이 화북진성임을 설명한다. ▷ 화북진성을 토대로 학습 활동을 진행한다. | 5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학생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발표하도록 유도한다. |
| | 곤을동 환해장성 | 곤을동 환해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곤을동 환해장성으로 이동한다. ▶ 곤을동 환해장성을 자유롭게 둘러보게 한다. ▷ 각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곤을동 환해장성을 둘러보고 발표한다. | 15분 | |
| 정리 | 느낀점 발표하기 | | ▶ 화북동 해안 방어유적을 살펴본 후 느낀점을 발표하게 한다. | 10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사후학습에서 할 내용을 이야기 해준다. |
| | | | ▶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안내한다. | | |

【지도상의 유의점】

- 화북동에 있는 해안 방어유적을 파괴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 환해장성은 바다와 접해 있으며 별도연대도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을 각별히 유의한다.
- 교사가 학습장소에 데리고 가 적절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개인별 조사학습에서 학습부진을 겪는 학생들에 대해 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족한 부분을 돕는다.

화북동 해안방어유적 현장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주 해안 방어유적의 상호 관련성을 통해 제주의 해안 방어체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한 지역에 모여 있는 해안 방어유적을 통해 제주 해안 방어체계의 원리를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화북진성의 경우 『탐라순력도』에서 학습한 것과는 다르게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 예전의 모습을 확인하기 힘들며 조천진성과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점을 통해 학생들은 화북진성과 조천진성을 서로 비교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학습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별도연대의 경우에도 조천연대나 다른 연대와는 다르게 뿔감을 보관하는 구조물이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물은 연대의 기능을 근거로 학생들의 다양한 해석을 알아볼 수 있다. 증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역사적 상상력의 구성요소인 구조의 상상에 해당한다.¹⁰⁷⁾ 따라서 별도연대에 관한 학습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탐라순력도』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환해장성을 통해 제주 해안방어체계의 특수성을 알아볼 수 있으며 환해장성이 여전히 생활 속에서 활용된다는 점을 통해 제주의 문화재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107) 전영준, 앞의 책, 2018, 127쪽.

다음 구조물을 보고 느끼는 점을 자유롭게 써 봅시다.



명칭:

역할:

<과제 1> 다음은 제주의 해안 방어유적 중 하나이다. 유적 명칭을 쓰고 역할에 대해 알아보자.

<과제 2> 별도연대를 찾아가 다음 과제를 수행해 봅시다.



연대의 위치가 적절한가요?

오른쪽 그림을 보고 다음의 공간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었을지 적어봅시다.

<과제 3> 다음은 제주의 해안 방어유적 중 하나이다. 물음에 답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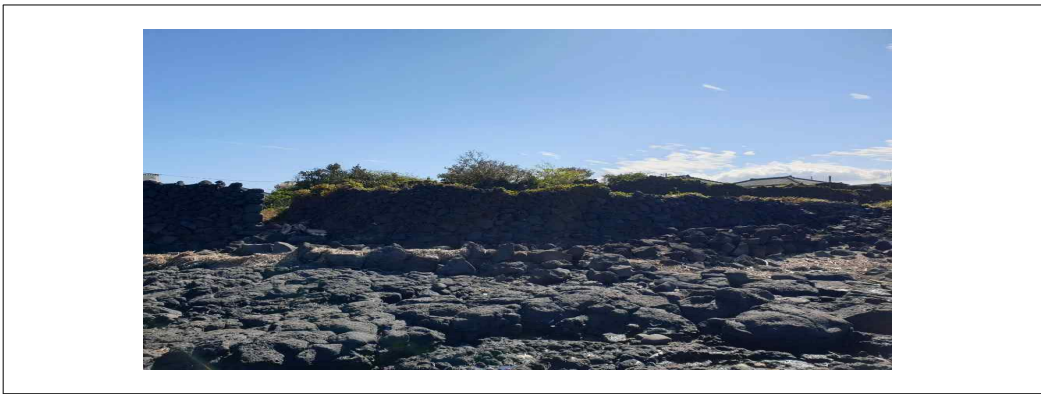


명칭:

역할:

『탐라순력도』에서 본 화북진성과 현재 남아있는 화북진성을 비교하고 느낀점을 말해봅시다.

<과제 4> 곤을동 환해장성을 보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앞에서 살펴본 화북 환해장성과 곤을동 환해장성을 비교해 봅시다.

생활 속에서 이용되는 환해장성을 찾고 느낀 점을 적어봅시다.

3) 제주읍성 현장학습 프로그램

제주읍성 프로그램은 크게 2가지로 구성되는데 주로 읍성의 군사적 기능과 행정적 기능을 알아보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었다. 제주 읍성에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군사적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성벽이 남아 있으며 초소 겸 지휘소 역할을 하였던 제이각이 남아 있다. 제주읍성의 행정적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다양한 관아시설이 있는 제주 목 관아지가 남아 있어 읍성의 행정적인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였다.

<표 17> 제주읍성 프로그램의 학습 목표

| |
|---|
| <p>【지식 · 이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지방 행정 조직으로서의 제주 읍성의 역할을 알 수 있다.② 조선의 군사제도를 담당하는 읍성의 군사적 기능을 알 수 있다.③ 제주목 관아의 다양한 관청들을 통해 제주 읍성의 행정적 기능을 알 수 있다. <p>【기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현장자료를 직접 보고 분석할 수 있다.② 제주읍성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시설들을 조사할 수 있다. <p>【가치 · 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제주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다.② 모듬활동을 통해 협력하는 태도를 기른다. |
|---|

제주읍성의 현장학습 프로그램은 사전학습을 통해 제주해안 방어체계를 이해하고 『탐라순력도』를 통해 해안 방어시설을 확인한 후 이루어진다. 현장 활동은 모듬별 협동학습으로 조천진성에서 사용했던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학생들이 일관성 있는 학습방법을 활용하게 된다. 제주목 관아의 경우 관아시설에 대한 안내와 역사관, 체험관 등이 존재하고 있어 이러한 시설들을 통해 도움을 받으며 활동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제주읍성과 목관아지에 가서 제주읍성의 다양한 모습을 보고 교사의 설명과 서로의 보충 설명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는 학습을 통해 현장 활동을 하게 된다.

<표 18> 제주읍성 현장학습 교수—학습 과정안

| | | | |
|------|--|------|-------------|
| 대단원명 | IV.조선의 성립과 발전 | 차시 | 3/3 |
| 중단원명 | 4. 통치체제 정비와 대외관계 | 수업형태 | 모듬별 협동학습 |
| 학습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읍성을 통해 읍성의 기능을 알아 볼 수 있다. • 제주읍성에 있는 제주인의 다양한 생활모습과 유적을 통해 제주인의 을 이해한다. | | |
| 수업자료 | 현장자료, 현장 활동지 | 소요시간 | 45분 |

| 학습단계 | | 주요 학습내용 | 교수-학습 활동 | 시간 | 자료 및 유의점 |
|------|-----------------|--------------|---|-----|---|
| 도입 | 학습동기 유발 | 제주성지 성벽과 치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역할 ▷ 학생의 역할 | 5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읍성의 성벽을 자유롭게 볼 수 있게 한다, ▶ 본 수업의 주제는 제주읍성의 다양한 시설을 조사하는 수업임을 알려 준다. ▷ 제주성지를 자유롭게 둘러본다. | | |
| 전개 | 모듬별 탐구활동하기 | 제주읍성의 군사적 기능 | ▷ <과제1>제주 읍성의 군사적 기능을 알아 볼 수 있는 유적들을 통해 제주읍성의 군사적 기능을 알아 본다. | 5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 | 교사와 학생이 함께 정리하기 | 제주읍성의 군사적 기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발표하면 교사가 학습내용의 보충을 통해 활동을 완성하고 정리한다. ▶ 제주목 관아로 이동한다. | 5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듬별로 4가지의 과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모듬별 구성원이 주제를 하나씩 맡아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
| | 모듬별 탐구활동하기 | 제주목 관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모듬별로 구성원들이 모여 4가지의 학습과제를 분담한다. ▷ 분담한 각자의 과제를 수행한다. | 10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한다. |
| | 모듬별 조사 완성하기 | 제주목 관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모듬별로 구성원들이 모여 자신이 해결한 과제를 각자 설명하고 공유한다. ▷ 각 조원들의 설명을 토대로 학습 활동지를 작성한다. | 5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를 형성한다. |
| | 교사와 학생이 함께 정리하기 | 제주목 관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와 학생이 제주읍성의 활동지를 다함께 가면서 발표하고 교사는 보충설명을 한다. ▷ 각 모듬의 구성원들은 각자 맡은 활동장소에 도착했을 때 자유롭게 발표하고 부족한 내용을 보충한다. | 10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를 형성한다. |
| 정리 | 느낀점 발표하기 | | ▶ 제주읍성을 둘러보면서 느낀 점을 발표하게 한다. | 5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 배운 내용과 다음 시 |

| | | | | |
|--|--|-----------------------|--|----------------------------|
| | | | | 간에 배울 내용의 연계성을 잘 이해하도록 한다. |
| | | ▶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안내한다. | | |

【지도상의 유의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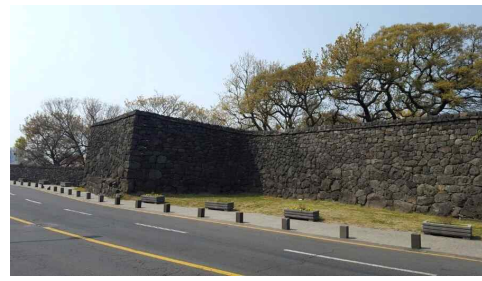
- 제주읍성 및 제주목 관아의 시설물을 파괴하지 않도록 안전상의 주의를 준다.
- 교사는 모듈별 탐구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 협동학습은 과거 소집단 학습과 다르게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 협동학습은 개별 책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성원이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제주읍성 현장학습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읍성의 군사적 기능을 앞선 진성의 군사적 기능과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읍성은 현재 일부 성벽만 남아 있지만 계속되는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과거 제주 읍성의 모습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제주읍성은 행정적인 기능을 알아볼 수 있는 관아시설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데 제주목 관아에 이들 시설에 대한 설명문이 존재하며 역사관, 체험관을 통해 과거 제주목의 모습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관아시설의 과거 생활 모습이 잘 복원되어 있어 이를 통해 과거 제주인들의 처지에 들어가 제주목 관아에서의 생활을 느껴볼 수 있다.

<학생용 활동지1>

다음은 제주읍성의 군사적 기능을 담당하는 방어 시설이다. 물음에 답해보세요



명칭:

명칭:

다음 방어시설에 역할을 적어봅시다.

(): _____

(): _____

다음은 제주목 관아의 안내도이다. 주어진 질문을 통해 과제를 수행해 봅시다.



<학생용 활동지2>

<과제 1> 행정 기능을 수행하였던 제주읍성의 관아시설이다. 물음에 답해보자.



명칭:

명칭:

역할:

역할(두 가지):

두 관아시설 중 과거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물을 쓰고 그 이유 자유롭게 써주세요

<과제2> 탐라순력도 체험관을 찾아가 방어시설의 구조를 완성기켜 보고 진성과 읍성의 기능을 찾아서 적어봅시다.



읍성:

진성:

<과제 3> 다음 건물을 찾아가 보고 건물의 이름과 기능을 적어봅시다.



()의 기능:

()의 기능

<과제 4> 다음의 관아시설의 기능을 다양한 관점에서 서술해 봅시다.



홍화각

홍화각의 과거의 용도를 적어보세요:

홍화각이 연희각과 함께 존재하는 이유를 적어봅시다

4) 사후학습

사후 활동은 현장학습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와 현장학습에서 활동한 내용을 정리해 보는 단계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활동한 내용을 직접 말하는 발표 혹은 직접 글로 써보는 글쓰기의 형태로 사후학습이 진행된다. 교실로 돌아온 학생은 현장학습에서 활동한 활동지를 토대로 글쓰기의 종류인 현장학습 보고서를 만들게 된다. 먼저 사전학습에서 학습했던 『탐라순력도』에서 확인한 유적의 모습과 실제로 현장답사에서 확인했던 유적의 모습을 서로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서 유적이 어떻게 변하고 복원되었는지를 알아본다. 그 후 현장학습 활동지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만들도록 유도한다.

이는 글쓰기 수업의 한 방향으로 역사가가 되어 글쓰기를 수행하는 역사 글쓰기에 해당한다. 역사가가 되어 글쓰기는 자료를 수집하고 역사적 사실을 역사적 맥락에서 해석,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역사가처럼 글쓰기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활동했던 내용을 토대로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보고서의 작성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실로 돌아와서 제주 해안 방어유적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학생들이 현장에서 활동한 내용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도록 지도해야 한다. 학생들은 현장에서 보고 듣고 말한 것을 토대로 교실로 돌아와 활동한 내용을 글로 써보면서 학습활동을 마무리하면 하나의 현장학습활동을 정리 할 수 있다.

보고서를 만들 때는 모듈별로 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로 조사한 내용을 공유하고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면서 하나의 보고서를 만들게 되는 과정을 통해 다시 한 번 학습내용을 복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가 완성되면 발표와 현장학습에 대한 소감을 통해 지역사 학습을 마무리 한다.

이러한 사후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인식하는 방법과 자신이 사 고한 내용을 역사적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¹⁰⁸⁾

108) 최상훈 외, 앞의 책, 2007, 229쪽.

V.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제주의 해안 방어체계를 주제로 지역사 교수-학습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사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역사 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도 여러 지역의 특수성과 상호 의존성을 중시하는 세계사 교육의 강조를 통해 지역사 교육이 관심을 받게 되었으며, 그동안 지역사 교육의 시도를 방해하던 시수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일정 부분 해결함으로써 지역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제주 해안 방어체계의 역사적인 가치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제주 해안 방어체계를 활용하여 지역사 학습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 학습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II장에서는 지역사 교육의 내용으로 제주의 해안 방어체계를 선정하고 그 내용의 중요성을 알아보았다. 해안 방어체계는 조선왕조 전체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전국적으로 해안 방어체계가 형성됨에 따라 제주에도 체계적인 방어체계가 형성되었다. 제주의 해안 방어시설의 종류는 읍성, 진성, 봉수, 연대, 환해장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시설이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며 제주를 방어하였다. 이러한 모든 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 제주의 해안 방어체계는 중앙사의 해안 방어체계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특징과 중앙사와의 대비되는 지역사만의 특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지역사 학습의 내용으로서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III장에서는 지역사 자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지역사 교육에서는 교과서만으로는 내용을 학습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교육과정에서 역사학습의 방법을 다양한 학습방법을 통해서 진행되기를 권장하고 있다. 제주의 해안 방어체계를 학습할 수 있는 지역사 자료는 풍부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 자료인 『탐라순력도』와 현장유적을 통한 하나의 현장체험학습을 구성하기 위해 지역사 학습의 교

재로서 두 자료를 검토하였다.

IV장에서는 지역사 교수-학습방안을 구성하고 제안했는데 지역사 교육의 자료로 선정한 사료와 현장자료를 통해 사료학습, 현장학습의 내용으로 학습방안을 구성하였다. 사료학습과 현장학습의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였으며 사전학습과 현장학습 그리고 사후학습이 학생들에게 하나의 학습으로 전달되는 것을 목적으로 그에 따른 학습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 학습방안을 제시했지만 한계점이 있어 몇 가지 의견을 추가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제주 해안 방어체계를 알아보기 위해 『탐라순력도』의 3개의 장면과 제주에 남아 있는 해안 방어유적 중 제주읍성, 화북진성, 조천진성, 조천연대, 별도연대, 화북 환해장성, 곤을동 환해장성 등 일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교육자원을 제외하더라도 제주 해안 방어체계를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장면과 장소를 통해 다양한 학습방안을 설계할 수 있는 교사 네트워크가 요청된다.

둘째, 효과적인 지역사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제주도내 중학교에서는 다양한 명목으로 현장학습을 떠나지만 생각보다 현장학습이 의미 있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의미의 현장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는 현장학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며 교사는 답사지 선정부터 교재의 개발,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통해 의미 있는 현장학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지역사 학습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하기 위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려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학습은 역사학습에서 중요한 위치를 지니고 있지만 현장학습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시간표 구성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현장학습의 경우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중학교의 경우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동아리 활동 등 특별활동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들을 잘 활용한다면 현장학습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사학습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소재의 지역사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다양한 역사학습의 목적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생들의 사고력 발달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동안의 역사교육은 입시 부담과 시수의 부족으로 교과서 위주의 수업만을 강의식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이 역사를 멀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지역사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갖게 하고 역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능력 그리고 다양한 생활 모습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기유발교육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1. 교과서

- 김덕수, 『중학교 역사』 2, 천재교육, 2019.
김태웅, 『중학교 역사』 2, 미래앤, 2019.
김형중, 『중학교 역사』 2, 금성출판사, 2019.
노대환, 『중학교 역사』 2, 동아출판, 2019.
박근칠, 『중학교 역사』 2, 지학사, 2019.
이병인, 『중학교 역사』 2, 비상교육, 2019.
교육부, 『2018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2. 사료

- 『고려사』
『탐라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조선왕조실록』
『탐라순력도』

3. 단행본

- 고재원, 『제주시 방어유적: 연대 · 봉수 조사연구』, 제주시 한국자치경제연구원, 201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2, 국사편찬위원회, 1995.
김한중 외,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책과함께, 2005.
양호환 외, 『역사교육의 이론』, 책과함께, 2009.
오창명, 『탐라순력도 탐색』, 제주발전연구원, 2014.
육군군사연구소, 『한국군사사』 5, 경인문화사, 2012.

육군군사연구소, 『한국군사사』 14, 경인문화사, 2012.
 윤종배, 『역사수업의 길을 묻다』, 휴머니스트, 2018.
 전영준, 『역사교과교육론』, 제주대학교 사학과, 2018.
 정선영 외,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2001.
 제주시탐라순력도연구회, 『탐라순력도연구논총』, 제주시탐라순력도연구회, 2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지』 2, 제주특별자치도, 2006.

4. 연구논문

강봉룡, 「바다로 보는 한국사」, 『역사학보』 232, 역사학회, 2016.
 김기동, 「17세기 제주도의 육군 재건과 방어체계 변화」, 『한국사학보』 74, 고려사학회, 2019.
 김민정, 「역사과 교육과정 내용체제의 대강화와 성취기준 제시 방식에 대한 재검토」, 『사회과교육연구』 21,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14.
 김보한, 「고려·조선의 금구외교(禁寇外交)와 일본의 대응」, 『한일관계사연구』 66, 한일관계사학회, 2019.
 김일우, 「고려시대와 조선초기 제주도 지역의 행정단위 변천」, 『한국중세사연구』 23, 한국중세사학회, 2007.
 _____, 「고려·조선시대 외부세력의 제주진입과 제주여성」, 『한국사학보』 32, 고려사학회, 2008.
 _____, 「조선시대 제주 관방시설의 설치와 분포양상」, 『한국사학보』 65, 고려사학회, 2016.
 김태호, 「제주도의 해안지형」, 『탐라문화』 18,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7.
 소순규, 「조선 초기 왜료(倭料) 규모의 증가와 제도적 대응」, 『조선시대사학보』 69, 조선시대사학회, 2014, 74쪽.
 손승철, 「조선시대 ‘공도정책’ 의 허구성과 ‘수토제’ 분석」, 『이사부와 동해』 1, 한국이사부학회, 2010.
 송기중, 「17세기 수군방어체제의 개편」, 『조선시대사학보』 53, 조선시대사학회,

- 2010.
- 송준영, 「국사교육에 있어서 향토사 교재의 지도방안」, 『역사교육논집』 13, 역사교육학회, 1990.
- 신명호, 「조선 초기 중앙정부의 경상도 해도정책을 통한 공도정책 재검토」, 『역사와경계』 66, 부산경남사학회, 2008.
- 신효승, 「조선후기 제주도의 관방체계」, 『역사와실학』 59, 역사실학회, 2016.
- 오상학, 「조선시대 제주도 9진성에 대한 역사지리적 고찰」, 『한국고지도연구』 11, 한국고지도연구학회, 2019.
- 윤용혁, 「고려 삼별초의 제주 항전」, 『제주도연구』 11, 제주도 연구회, 1994.
- 이규철, 「1419년 대마도 정벌의 의도와 성과」, 『역사와현실』 74, 한국역사연구회, 2009.
- 이호태, 정호근, 「평저선과 침저선의 직진성능, 선회성능, 및 풍랑에 대한 저항성능 연구」, 『현장과 과학교육』 2, 한국현장과학교육회, 2008.
- 전영준, 「2009년 개정 교육과정과 현행 중학교 8종 역사부도 분석 -고려와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사총』 73,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1.
- _____, 「13~14세기 元의 목축문화 유입과 제주사회의 변화」, 『제주도연구』 40, 제주학회, 2013,
- _____, 「삼별초의 향파두리 토성 입거와 전략적 활용」, 『역사민속학』 47, 한국역사민속학회, 2015.
- _____, 「역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중등 역사수업의 문화재 교육」, 『역사와실학』 47, 역사실학회, 2018.
- _____, 「고려~조선시기 제주 동부지역의 교통로와 普門寺址」, 『역사민속학』 58, 한국역사민속학회, 2020.
- _____, 「조선시대 해안 방어유적과 교통로」, 『2020학술답사 자료집』, 제주문화원, 2020.
- 진관훈, 「조선후기 제주사회의 빈곤과 구빈활동」, 『탐라문화』 4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2.
- 한문중, 「조선전기 왜관의 설치와 기능」, 『인문과학연구』 32,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한은미,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중·고등학교 역사교육프로그램 개발」, 『역사와 교육』 15, 역사와 교육학회, 2012.

5. 학위논문

강민희, 「중학교 역사교육에서 제주지역사 교수-학습 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한은미,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국립제주박물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개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임승희, 「조선후기 제주지역 지방군의 편제와 실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장재훈, 「조선시대 제주지역 방어시설의 학습지도방안 -초등학교의 향토사 교육과 관련하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문은아,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지역화 학습을 위한 현장학습 프로그램 개발: 제주민속촌 박물관을 사례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김두영, 「조선시대 도서지역 읍성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김명철, 「조선시대 제주도 관방시설의 연구 -읍성 · 진성과 봉수 · 연대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18개정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대강화의 원칙에 따라 교사에게 자율권을 부여하여 다양한 역사교육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방침에 따라 제주의 해안 방어체계를 교육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교수 학습방안을 마련하였다. 제주의 해안 방어체계를 토대로 한 지역사 교육의 대안 마련은 역사교육에서 많은 장점을 가진다. 지역사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역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중앙사와의 보편성과 지역사의 특수성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다.

지역사 교육에서는 적절한 교육내용 선정과 학습자료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역사적 검토 및 문헌연구를 통해 제주 해안 방어체계가 교육내용의 적절성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제주 해안방어체계에 대한 유용한 역사적 정보를 제공하는 『탐라순력도』와 현장유적을 활용하여 학습방안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사전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제주 해안방어체계의 개념을 익히고 과거의 해안방어시설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제시하였다. 이어지는 현장학습 활동으로 학생들이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중심 협동학습 혹은 개인별 조사학습을 통해 교사가 제시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초점을 둔 교수 학습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교과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학습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역사가의 활동인 사료와 현장유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현장 수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활동은 학생들의 역사적 탐구기능과 역사적 상상력을 확장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역사적 사고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역사교육, 제주 해안방어체계, 현장학습, 역사적 사고력

<Abstract>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in Local History Education: The Case of the Jeju Coastal Defense System in the Joseon Dynasty

Song, eun-seok

Major in Histo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Jeon, Young-Joon

The 2018 revised curriculum highlights teachers' autonomy to enable diverse history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is principle, this thesis suggests a new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based on the Jeju coastal defense system. The local history education method using the Jeju coastal defense system has many advantages in history education. Students can gain interest in history through local history education. Furthermore, students can learn both universality in history and regional specificity simultaneously.

In local history education, appropriate educational content and learning materials are essential. This study first shows that the Jeju coastal defense system is suitable for educational content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dditio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along with field trips to historical sites, "Tamna Sunryeokdo" can be useful material because it offers rich

information about Jeju island generally and its coastal defense system specifically. Specifically, th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proposes that students have an opportunity to learn the concept and facilities of the Jeju coastal defense system in the past through “Tamna Sunryeokdo.” As a subsequent activity, the method suggests that students go on a field trip to local sites to find more information about the system or solve the provided problem through task-centered cooperative learning.

Th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enables students to learn and experience both historical materials and field relics outside the classroom. These learning activities provide students with local history knowledge that is beyond textbooks. This learning process will help students expand their historical inquiry and historical imagination and thereby contributes to improving student historical thinking skills.

Keyword: History education, Jeju coastal defence system, Field trip, Historical thinking